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

巴里試案問題로 佛政府對策協議

大統領루브랑氏司會下에 緊急國務會議開催

【巴里二十六日發聯合】 佛國政府는 二十六日 에리제宮에 緊急國務會議를 開催하고 루브랑大統領司會下에 二十七日의 下院外交討議에處할 重要對策을 協議하였다 席上에서 라발首相은 最近의 國際情勢特히 巴里試案成立으로부터 流産에至하기까지의 經緯를 詳細히 說明하얏다 라발首相의 說明에 對해서는 閣僚로부터 特히反對가 업섯다고 解釋되나 最後에 뷰쇼將軍을 空軍總司令에任命하기로 決定하고 國務會議는 前後三十分에 散會하였다 會議終了後 에리오無任所相만 남아서 루브랑大統領과 一時間餘에 亘하야 密議하였다 에리오無任所相은 廿七日의 外交討議에 際하야 痛烈히 巴里試案을 痛擊할 意向이라고 傳한다 루브랑大統領은 政局의 危機를 說明하고 에리오無任所相의 自重을 要請하였다고 解釋된다 (寫眞은 루브랑大統領)

將兵一萬二千에 伊首相, 動員令

英外相更迭로聯盟石油斷交案通過豫想코 萬一境遇對策講究

【羅馬二十六日發聯合】 뭇솔리니首相은 二十五日 豫後備役將校 科將兵一萬二千人에게 對하야 動員令을 내렷다고 傳한다 뭇솔리니首相은 이든新外相의 就任에 微하야 英政府의 態度强硬을 豫想하고 聯盟理事會가 드듸어 石油斷交案을 決定할것을 압두고 벌서 萬一의 境遇에 對處할 措處를 講究하엿다고 보인다

齋藤大使非難에 피上院議員釋明

【華盛頓二十六日發聯合】 米上院外交委員長 피트맨氏가 去十二月十九日 네바다州라스베가스市에서 國際問題討論에잇서 日米戰爭論을 力說하야 脅迫的言辭를弄한데對하야 華盛頓駐箚齋藤大使는 暴論이라고 抗議的見解를 表明하엿다고 傳하는대 핏트맨上院議員은 議會開會劈頭 上院에서 齋藤大使의 非難에 對하야 釋明하기로 決定하엿다 非難하기前에 좀더 余의演說이 正當히報道되엿는가를 一旦아려보는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議會開會劈頭 齋藤大使의 非難에 對하야 一矢로應酬하려한다

兩院議長奉答文奉呈

【東京電光聯合】 近衛貴族院議長 濱田衆議院議長은 二十七日午前十一時 함께 參內하야 宮中鳳凰間에서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恭遞되히 二十六日의 開院式에 賜하옵신 勅語에 奉答文을 各各 奉讀하고 이것을 奉呈하엿는데 陛下께옵서는 御嘉納하시옵고 左의 勅語를 賜하옵시고 入御하옵시엇다

朕 貴族院의 深厚한 敬禮를 嘉함

朕 衆議院의 深厚한 敬禮를 嘉함

이리하야 兩院議長은 光榮에 感激코 退下하엿다

秩父宮同妃兩殿下 宮城에御參內

【東京電話聯合】 弘前의 御任地로부터 二十四日 오래간만에 御歸東하옵신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二十七日 午前九時 御參內하야 天皇陛下께 御對面하시고 御人事後 여러가지로御歡談하시고 皇后陛下를 御慰問하신 다음 皇太子殿下 義宮殿下 順宮殿下와 御對面하시고 午前十時頃 宮內省廳舍에 臨御하사 湯淺宮相의 御先導, 木下內匠頭의 御說明으로 三層大臣室官房으로부터 二層一層等 執務中인 各室을 順次御巡覽하신後 十一時半頃 御歸邸하옵시엿다

三百三十三機를 米陸軍購入契約

【華盛頓二十六日發電通】 陸軍省發表에 依하면 最近一週間內에 陸軍當局은 陸軍航空兵力補强을 爲하야 總計三百三十三機에 達하는 軍用機購入契約을 行하엿는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攻擊機 一一五機
一、爆擊機 一〇三機
一、偵察機 一一五機

右에 要하는 經費 一、五〇〇萬弗 그리고 當局은 近近 追擊機百機의 購入計畫을 가지고 잇는데 右로써 航空兵力充實에 充當할 二千三百萬弗의 豫算을 消費할터이다

海軍軍縮會議와 그前途

三國對中關係는 本質的으로相異

(卅七) 雲崗生

何如間, 英米두 나라가 다 제집에서는 門戶閉鎖主義, 機會不均等主義를 쓰면서 남의집에 對해서는 門戶를 均等히 開放해라, 又는 機會를 均等히 가지자하야 제 慾心만 채우려는것으로 日本은 볼수밧게 업다. 따라서 日本은 아직 비록 公式으로 말은 안코 잇스나, 이두나라에 對해서 「日本은 門戶開放도 조코, 門戶閉鎖도 조타. 엇든 門戶를 開放하려면 全世界가 다 꼭가티 開放하는것이 올코, 門戶를 閉鎖하려면 全世界가 다 꼭 가치 閉鎖하는것이 조타. 그러니까 英國이 英帝國內經濟부락을 結成하야 他國商品에 對하야 門戶를 굿게 閉鎖하고, 또, 米國이 몬로主義에 依하야 米大陸의 門戶를 閉鎖할 資格이 잇다고 하면, 日本도 亦是, 그와 꼭 가튼 理由에 依하야 極東의 門戶를 閉鎖할수가 잇다. 그대신 英國이 英帝國부락結成主義를 抛棄하며, 米國이 몬로主義를 抛棄하고서 日本商品과 日本人에 對하야 門戶를 開放한다고하면 그제는 日本도 亦是, 極東門戶를 開放하기에 躊躇치 안는者이다.」라는 態度를 取하는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世界情勢下에서는 이 두나라가 各저렴 自己집의 門戶를 開放해서 日本人及日本商品을 歡迎할것갓지 아니하니까, 日本도 亦是, 이에 따라서 極東에 잇서서 英米그他諸國에 對하야 門戶를 閉鎖하려고 드는 것이다. 故로 極東에 關한限에 잇서서는 英米는 門戶를 開放하려는者이오, 日本은 此를 閉鎖하려는者이다. 그런데, 門을 여는데도 힘이 必要하고, 이것을 닷는데도 힘이 必要하다. 故로 此를 英米側으로 보면 日本이 닷으려는 門을 열어야 될터이니까, 그門을 여는 힘으로 海軍力이 그러치 안흔 境遇보다 더 必要하고, 此를 日本側으로 보면 英米가 열려는 門을 닷으려니까, 닷는힘인 海軍力이 그러치 안흔 境遇보다 더 必要하다. 이것이 極東門戶開放主義때문에 日英米三國間에 激烈한 海軍擴張競爭이 이러나는 根本理由다.

以上을 要컨대 英米도 中國에 對하야 버릴수업는 利害關係를 가젓다는것이오, 日本도 中國에 對하야 抛棄할수업는 利害關係를 가젓다는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大體로보면 日英米三國이 꼭가치 中國에 對하야 抛棄할수업는 利害關係를 가진 것이나, 이것을 一層, 더 나아가서 詳細히 考究해본다면 中國에 對한 利害關係에 잇서서 日本이 가진關係와 英米가 가진 關係와는 本質的으로 큰差異가 잇슴을 發見할수가 잇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英米의 中國에 對한 關係는 單純한 經濟的利害關係인데 對하야 日本의 中國에 對한 關係는 國防, 經濟 兩方面에 亘한 死活的利害關係다.」라는 一點이다. 이 一點을 日本側에서는 이러케 說明한다. 卽 英米의 中國에 對한 關係는 「그 나라들이 더 繁榮하느냐 안느냐?」하는 問題인데 反하야 日本의 中國에 對한 關係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問題이다라고 說明하는것이다.

이제 이 理致를 略簡, 說明하자면 英國이나 米國은 實로 廣大한 領土에 豐富한 資源을 裕足히 가지고 잇다. 좀더 事實에 맛도록 말하면, 兩國民의 現在의 數와 能力을 가지고는 다 利用할수가 업서서 大部分의 富源을 死藏하고 잇다는것이 英米兩國의 現狀이다. 故로 英國이나, 米國이나는 中國의 富源에 조곰도 參與안코도 지낼수가 잇는것이다. 다만 人類의 先天的으로 가진 所有欲父는 本能上으로 보아 中國의 富源까지 가저 보앗스면 하는 慾心에 不過한것이다. 이런意味로 보아 英米가 中國에對하야 가진 關係는 『더 繁榮하느냐? 안느냐?』하는 問題바께 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 此에 反하야 日本으로 말하면 過剩한 人口에 貧乏한 富源을 가진 나라다. 故로 日本은 그過剩人口를 他處로 옴길 必要가 잇고, 그不足한 富源을 補充할 地域이 必要하고, 또 그過剩한 工業生産品을 販賣할 市場이 必要하다. 이런자리를 못 엇든 날이면 日本國民은 안저서 餓死할수밧게 업다. 이必要에 依하야 日本은 歐米를 向하야 移民을 보내고저 해 보앗스나 主로 英米의 妨害에 依하야 門戶閉鎖를 當햇다. 이必要에 依하야 日本은 그 商品을 歐米로 보내 보앗스나 主로 英國의 妨害에 依하야 門戶閉鎖를 當햇다. 이러케 各地에서 英米의 日本人及同商品에 對한 門戶閉鎖에 依하야 逐出을 當한 日本은 이제 나머지 오직 한길밧게 업다. 그것은 卽, 亞細亞大陸方面, 卽 主로中國을 向하야 빼치는수밧게 업다. 그러니까 이 中國에서 마저 英米때문에 逐出을 當한다면 그제는 日本은 經濟的으로 根本的破滅을 當할수밧게 업는 것이다. 이러케 생각하야 가튼 經濟的利害關係라고 할지라도 日本의 그것은 英米와는 本質을 크게 달리하야 『生이냐? 死이냐?』의 死活的關係라고 하는것이다.

그리고, 日本과 中國과는 地理的으로 一葦帶水의 關係에 잇스니까, 中國에 英米의 政治的勢力이 빼처가지고는 日本은 到底히 國防의 安全을 期할수업는 것은 前陳述에 依하야 多言을 不要코, 알바이다. (續)

冀東自治政府 中央銀行을設立

首都는唐山으로移轉決定 不遠政府旗도制定

【天津二十六日發聯合】 冀東政府에서는 近近 政府紙幣를 制定發行하는바 또 資本金百萬元의 冀東銀行을 設立하고 分店을 十數個所에 設置하야 紙幣를 發行하기로되엿다

【天津二十六日發聯合】 冀東防共自治政府는 近近 國旗를 制定하는同時에 自治政府를 通州로부터 唐山으로옮겨 唐山을 自治國首都로하는同時에 國家銀行으로 資本金百萬元全額拂込의 冀東銀行을 設立하기로 決定하엿다

列車妨害學生 武力彈壓

【上海二十六日發聯合】 上海南京間의 鐵道는 學生運動때문에 아직 運轉不能의 狀態에 잇는바 學生群은 昶州에 據하야 依然 氣勢를 올리고잇스므로 政府는 列車의 運行妨害하는과 如한것은 默許할수업다고 憲兵을 派遣하야 이것을 鎭壓하기로되어 二十六日朝 公需兵司令은 憲兵二百名을 列車로 學生鎭壓을 爲하야 昶州昆山에 向하엿다 同地에서 一旦解散을命하고 萬若不聽의境遇에는 全部를逮捕하야 嚴罰에處할터이다

反自治學生團 機關車自手運轉

飮料水缺乏과風寒에시달리며 南京을向하야牛步行進

【上海二十六日發電通】 蘇州에서 列車에 放置된 男女學生運動團 千二百名은 飮料水의 缺乏과寒氣와싸우면서 機關車를 스스로 運轉하야 牛步行進을 繼續中인데 二十六日午前 無錫에到着하얏다 彼等은끗까지 南京에赴하다고 버티고잇서서 南京上海間의 交通에 一大支障을 招來케하고잇다 그리고他의 千三百名의 一團은 崑山으로부터 昨夜上海에 歸還하엿다

積極的彈壓開始

【上海廿六日發電通】 學生運動의 惡化에 乘하야學生中에 潛入한 〇・〇團員、藍衣社員或은 共產黨員이 跳梁하므로 淞滬警備總司令部에서는 드듸어積極的彈壓을 加하기로되어 此等不良分子의 搜查逮捕를開始하얏다 그리고無錫에서 버티고잇는 復旦大學生에게 對하야 上海市政府敎育局長及復旦大學校長은 無錫으로 急行하야 鎭撫에 努力中인데 學生團도 疲勞困憊하여잇기 때문에 아마 平穩裡에 解決될것으로보인다

昭和會選擧對策

【東京電話電通】 昭和會에서는二十六日午後四時半부터 東京스테이숀호텔에서 選擧對策 協議會를 開하고 內田、山崎兩相井阪、靑木、平野、兼田、森의 各政務官、睿名、龍、樋口、石井、飯村의 各代議士와 茨城縣代表數名이 出席하야 內田鐵相의 人事가잇슨後 內務省警保局小林事務官으로부터 改正選擧法의 實際的運用에 對한說明을 聽取하고 이에 對하야 여러가지 質疑應答을 거듭한後 또 解散이 豫想되는 六十八議會에 對한今後의 方策에 關하야協議하고 同六時 十分散會하엿다

貴衆兩院本會議

貴族院 【東京電話電通】 本會議는 二十七日午前十時十四分 開會하고 近衛議長이 勅語奉答文案을 朗讀하고 議場에 諮하야 全會一致로써 이것을可決한다음 日程에 들어가 貴族院全院委員長選擧를 行하엿는바 投票總數 二百十二票中 二百六票로써 德川圀順公이 全院委員長에 當選하엿다 이어서各部屬常任委員을 選擧하기爲하야 同十時四十一分休憩 十一時二十分 再開하고 宮中으로부터 退下한 近衛議長이 勅語奉答文을 捧呈하엿는바 天皇陛下께옵서 다시御嘉納하옵신 勅語를 賜하옵시엇다 라고 報告하고 全員起立裡에 勅語를 奉讀한後 即時 各部에서 行한 常任委員選擧의 結果를 書記官으로부터 報告한다음 議長이 今年會期는 이로써 終了하고 來會期가 오는明一月二十日까지 休會한다는 旨를 宣하고 十一時二十九分 散會하엿다

衆議院 【東京電話聯合】 二十七日의 全院委員長과 各常任委員을 選擧하기爲한 衆議院本會議는 午前十時四十五分 開會하고 即時 全院委員長選擧에 들어가 投票한結果

投票總數 二八五
百八十票 田口文治(政友)
八十七票 本田彌市郞(民政)
十四票 戶田由美(國同)
一票 橫山泰造(政友)
一票 志賀和多利(政友)
二票 白紙

이리하야 田口文治氏가(政友)絶對多數로서 全院委員長에 當選되고 이어서 各常任委員을 選擧하기爲하야 十一時十五分 一旦休憩 常任委員 互選을 終하고 午前十一時五十一分再開, 濱田議長, 勅語奉答文을 奉呈하기爲하야 宮中에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奉答文을奉呈하엿던바 다시 優渥한 勅語를 賜하옵시엇다 라고 報告하고 議員起立裡에 勅語를 奉讀하고 常任委員選擧의 結果를 報告하엿다 議長、本會議散會後 委員長理事의 互選을 行해주기바란다 라고 述하고 다시 本會議는 火木土 質問日은 火曜日로한다 또 必要가 잇슬 境遇를 除하고 二十八日로부터 一月二十日까지 休會한다는 旨를 述하고 正午散會하엿다

內府更迭은 一木氏辭任前提

貴族院은如是觀測

【東京電話聯合】 內大臣의 更迭은 二十六日 突然 決定發表되어 齋藤子가 內府에 親任되엇는데 右에 關하야 貴族院과 政界一部에서는 그政治的影響에 對하야 如左한 觀測을 내리고 一木樞相과 金森法制局長官辭任의 前提工作이라고 重視하고잇는이도 잇다 卽 一木樞相의 辭意는 同氏의 健康이 滋味업슬뿐 아니라 機關說問題로 軍部와 政友會方面의 非難의 的이 되어 잇기때문에 本人도 辭意를 漏洩하고 잇스며 또 重臣方面도 國體明徵問題가 政治問題化하는것을 極力 阻止하고십다는 意向을 가지고잇스므로 適當한 時機에 樞相更迭을 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岡田首相을 爲始하야 齋藤、牧野等重臣間에서는 그時機를 엿보고잇는터이던바 樞相更迭과 如한 重大人事를 突然히 行할때에는 一木男에 傷處를 내게되고 또重臣의 政界에 及하고잇는 重壓을 減할 結果가 되므로 먼저 身病으로 養生中인 牧野內府의 後任으로 齋藤子를 任命하고 徐徐히 樞相更迭을 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伴하야 當然 行할것으로 豫想되는 近近 金森法制局長官의 更迭은 阻止하고 잇는것은 後任難의 結果인데 齋藤子가 內府가 되므로 設使 平沼副議長이 昇格하더라도 重臣勢力에 그다지 影響도 업슬터이므로 樞相更迭의 時機는 意外로 빨라 議會休會終了前 一月二十日頃까지에 行할것이라고 하므로 事態의 進展은 相當히 重視된다

須磨總領事上海行

【南京二十六日發聯合】 須磨總領事는 京、滬間列車가 不通이기 때문에 二十六日午後六時半 南京發 日淸汽船洛陽丸으로 上海에 向하엿다 有吉大使와 會見協議한後 二十九日上海發 南京에 歸還하기로되엿다

內閣彈劾案은 休會後에考慮

政友幹部態度協議

【東京電話聯合】 政友會의 國體明徵派는 二十七日의 衆議院本會議에 國體明徵問題에 關한彈劾上奏案을 緊急上程하려고 黨幹部에 要請케되엿슴으로 右取扱을 審議하기爲하야 政友會는 二十六日 午後十一時부터 芝三條亭에 院內外總務會를 開하고 먼저 生田總務로부터 國體明徵派의 意向을 述하고 이것을 中心으로 審議를 進行한바이엇는데 總務大多數의 意向은 年內에는 時期가 切迫하야 如斯한 重大問題를 突然 議會에 緊急上程하는것이 不穩當하고 또明徵問題의 政治的取扱에 對하야 一部에서 反對意向을 가지고 잇스므로 結局 休會後 幹部會에 取扱을 一任하기로 意見이一致되어 年內는問題로 삼지안키로 決定하고 二十七日 午前零時半 散會하엿다

民政黨豫算委員

【東京電話電通】 民政黨의 豫算委員은 左의 十九名으로 決定하엿다

工藤鐵男 淸水留三郞 中亥歲男 中島彌團次 中村不二男 田中貢 大島寅吉 小川鄕太郞 原吉郞 百瀨渡 川崎克 松永東 古屋慶隆 中村三之丞 多田滿長 川淵洽馬 桝谷寅吉 武知勇記 田島勝太郞

八面鋒

◇ 二十七日 前場으로 各市場全部休店. 이로서 一九三五年의 經濟活動은 閉幕.

◇ 物價昂騰, 株價高騰, 貿易好調, 米高價, 軍需景氣繁榮等等으로 日本財界는 好調로越年豫想.

◇ 새로올 一九三六年은 漠然하나마 景況이조흐리라고 萬人期待가共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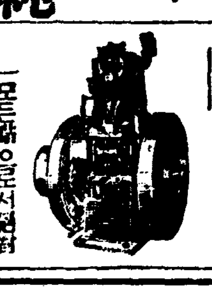
◇ 但이것은 돈가진사람 物件가진사람의 할수잇는酬酌, 업는사람도 덩다라뛰다가는큰코.

◇ 二萬圓貯蓄한者가 굶어죽엇다는事實, 十萬圓가진者는 얼어죽을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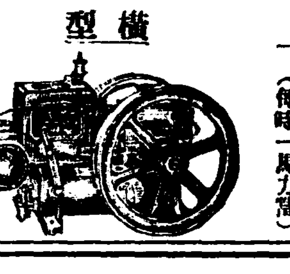
◇ 牧師가 保險金먹고자 自家에 放火, 天堂가기前에 地獄求景부터하자는 『프로그람』.

今年의 籾摺精米作業에는

양마ー 純디ー젤・양마ー 籾摺機・양마ー 米撰機・양마ー 發動機로決定하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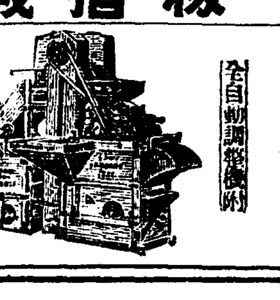


竪型 모든點으로서 絶對 他의追從을不許함 燃料費一錢 (每時一馬力當) 專賣特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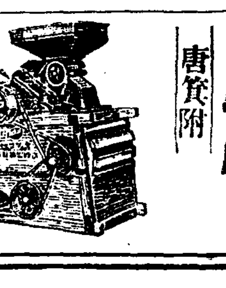


橫型 籾摺機는 十年前양마ー보다 優越한것업다

全自動調整機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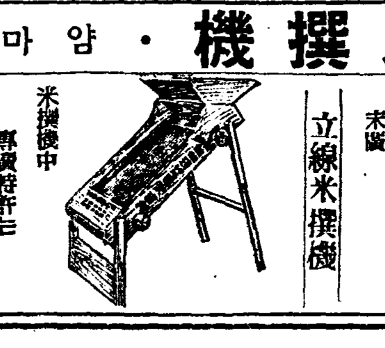


唐箕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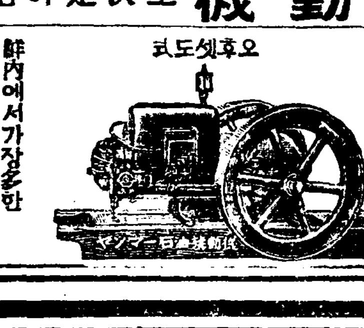


千島 平面乘用 末廣

立線米撰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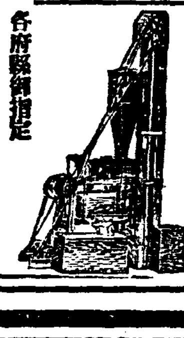
米撰機中 專賣特許는 양마ー뿐 農林省推薦機 各府縣御指定



오후쉐도式

鮮內에서 가장多한 需要者를有한것은 石油 輕油 양마ー 發動機뿐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查甲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縣御指定

申込即時 型錄贈呈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驛前 電本局⑵二〇〇三

登錄商標

世界樞要各都市에서도頒藥되는

담기침 천식

特効藥 龍角散

기침을참으면 體重이주러든다고까지 합니다. 기침, 담, 천식, 百日咳는, 輕하게生覺하지만 瞬時間에肺炎, 肋膜炎, 肺結核으로 變하기쉬운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침이 이러나면곳 効力適確한 龍角散을 服用하시와 根治하시요 우리龍角散은 海外諸國에서 好評이자자한 特効藥이오니 곳 服用하시는것이좃습니다.

龍角散

三大特長

(一)龍角散은 優良한原料만 配合한藥이故로 小兒로도 極히 適確한 効果가잇나니며 (二)香味가매우 爽快하여서 먹기조흔故로 藥실허하는분, 病者, 어린애게도 먹이기조흐며(三)또한 副作用이업서 조흔藥分으로 完全히治療目的을 達할수잇습니다

龍角散의適應容態書

(痰咳)/담으로항상콜록콜록하는분
(喘息)/천식으로그르렁거리고숨찬분
(咳嗽)/기침이잣고밤잠못이루는분
(流感)/류행성감기로생기는담기침나는분
(肺炎)/늘폐병으로바튼기침하는분
(痰咳)/담에서냄새나고피석기는분
(咽喉)/목소래가쉬고또는인후아푼분
(小兒)/백일해와홍역기침하는아해

"RIUKAKU-SAN"
Good Medicine
For The Cough and Asthma

定價 二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豐島町
發賣元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一〇〇八〇二〇三

▽全朝鮮各藥房에서팝니다△

尊屬三人毒殺한 鬼畜無異惡行狀

—四回로丈人을毒殺할라다가發覺—

稀代의保險魔金仁禹送局

【釜山】황금에 눈이 어두어서 재산획려과 보험금사취를 목적으로 존속(尊屬)살인을 독살한 전고미문의 패륜망덕한 부산부 대신정(大新町)일천일백오십팔번지 김인우(金仁禹)(三○)에 관한 사건은 지난六일에 부산경찰서에 검거된후로 엄중한취조를하는일방 사체를발굴하야 약물검사까지한다함은 본보에루보한바인데 약물검사는 지금 경성제국대학의학부에서 하고잇서 결과는 알수업스나 경찰당국의취조와 범인의 자백등으로 증거가 확실하다고 지난 이십륙일 오전 십일시반에 일건서류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하얏다한다

그런데 송국서류에 나타난 그 전률할범죄의 내용은 다음과갓다

범인은 부산형무소에 간수로약일개년간 잇다가 또부산 우편국배달부로 약륙개월동안 근무하다가 소화구년칠월경에 실직하고 자긔친형이 부산장수동(長手通)에서 야시가가를 보고잇는데 가티 야시가가를 보앗스나 생활이 곤난을 당한 남어지재산획려과 보험금사취를 목적으로 소화구년 십이월오전일시경에 친형 김진우(金晋禹)(三○)가 위병(胃病)으로 고통하는것을긔회로부내 영주정(榮州町)모의원에서 몰약과 산약을 사가지고 미리 준비하야 두엇던 아비산(亞砒酸)을 몰약에 혼입하야서 먹이여서 동일 오전 륙시경에 사망함에 친형재산 일천사백칠십원을 횡령하고 간이보험금이백팔십원은 이개년이 만기임으로 수취하지 못하엿다하며 또 금년오월 이십오일 오후칠시경 자긔처 최란이(崔蘭伊)(二○)를 친죽(粥)에다가 아비산을 혼입하야 먹이여서 동이십륙일 오전팔시경 사망함에 보험금 이백팔십원구십구전을 부산우편국으로 부터 사취하고 또 금년시월십팔일 대신정 김장갑(金莊甲)의 딸 김윤연(金潤燕)(二○)과 결혼하얏는데 그처의 친모인 조말남(趙末南)(四○)이가 오륙백원의보험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하고잇는것을알고 그돈을횡령하고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전긔조를 간이보험에 가입시키고 긔회를엿보고 잇슬지음 조가 목에종기가나서 고통을하고잇는것을 긔회로 고양이기묘약이라고하야 고양이에다가 아비산을 혼입하야 살마먹이여서 시월이십팔일에 사망하얏는데조의재산은 조의남편이 김장전이가잇기때문에 횡령을 하지못하엿고 또보험금도이개년이되지못함으로 사취의목적을 달하지못하고 마랏는데 그재산을 기여코 횡령하려고 전긔 조의 남편즉 자긔장인을 독살하려고십일월 이십륙일 오후륙시경 막걸리에다가 아비산을 혼입하야 먹일나할지음 이웃에사는 김장전의 친우정인백(鄭仁伯)(五○)이가 놀러와서 그술을 두사람이 먹은관계로 양이적어서 미수에 도라갓다한다 (사진은 김인우)

不過九個月間에 八萬餘人이增加

지난九月末現在八十三萬餘人

在滿朝鮮人統計

재만조선인의 실수에대한 확실한조사는 아즉치안이 회복되지못하고 조사긔관이 불충분하야 정확한 수자를알기어려우나 총독부 외사과와 관동국(關東局) 만주국등의 련합조사에 의하면 금년십월말일 현재에 팔십삼만일천륙백칠십명으로 판명되엇다 그런데 작년십이월말에는 칠십오만이천 이백구십오명 이엇섯슴으로 이것으로보면 칠만구천삼백칠십오인이 증가한셈으로 불과 구개월간에 약팔만명이 격증한셈이라고한다 그리고 일본내지인은금년십월말일현재의 삼십오만일천오백팔십일명으로 작년말의이십오만륙천삼백사십명에 비하면이것역시 구만삼천오백오십일명이격증한셈이라한다

數千餘名聽衆

폴—링博士講演盛況

本社平壤支局後援

【平壤】면려청년회 평양련합회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아래 개최된 면려청년회 세계련합회장 『폴—링』박사대강연회는 이십륙일오후칠시삼십분부터 부내신양리(新陽里)숭실대강당(崇實大講堂)에서 련합회장 리영태(李永泰)씨 사회로 개최되엿섯다 이욱고 조선면려청년회련합회 총무리대위(李大偉)씨가『폴—링』박사의 리력소개를 한다음『폴—링』박사는 수천여 광중의 박수환호성속에 등단하여 안대선(安大善)씨통역으로『세계면려청년회와 조선청년』이란 연제로강연을 시작햇는데 요지는 대략 『전세계를 통하여 조선긔독교와가티 열성에넘치고 왕성한

장면을 처음보앗고 따라서 조선면려청년회와가티 활동을하는단체를 처음보앗스므로 압흐로 긔독교조선과 조선면려청년회를위하여 전세계의 압헤 자랑하고 선전하겟다 면려회련합회에 참가한사십이개국중에서 중요한 지위를점령한조선 면려회로서는 지금보다 더만흔 활동을하여조선청년의 정신을지배하게되는면려청년회 되기를긔대한다 신앙과 명예를위하여 생명을 앗기는자는 사람이안이오 신앙과 공동을위하여 생명을바리는것은 참된인간이다 조선청년도 긔독면려 청년운동으로 세계의 일원이되여가일층 활발한 활동을하여 세계의운동이 되여야할것이다따라서 세계적으로 진출할것이다 이리하여 조선의존재를전세계에 선양할것이다』 (폴—링박사의강연은 오십분동안으로 끗마치고 평양 련합회에의독창이잇고 평양 련합회에서박사에게 보내는 긔렴품진정식이잇슨후 동열시에폐회햇는데 박사는 부인의병으로 런려햇섯스나 쾌차되여 예정대로 이십칠일 오전열시이십삼분발『노조미』로 출발하여신의주방면을 거치어 귀국할터이라한다 (사진은 강연회장)

官公立은十五割 私立은十割以內

市內中等校뽀너—쓰消息

어느듯 금년도 몃칠이 남지안엇다 십이월은 그야말로 어느새지나가는줄도 모르게 총총히 지나가려한다 그래서 일반으로 가정의경제를 비롯하야 각방면의 일을 총결산하기에 바뿐때다 바들것보다도 항용줄것이 만흔 봉급생활군의 변말은 대체로 근심거정의때나 그중에서도 그래도 한가지 가쁜소식은『보—너쓰』의 사령이다 은행회사 관청방면은 이미보도햇지만 비교적 이런경기와는 인연이 먼 경성시내의 중등학교방면의 금년『보—너쓰』봉투의 무게는 얼마나되나? 각공립남녀중등학교는 례년과가치 십오할평균의정도엿고 그바께사립학교방면은 동덕여고(同德女高)라든가 보성고보(普成高普)들은 십할중앙고보(中央高普)오할북필두로재정이안정되고는대체로십할내지오할의『보—너쓰』를 주엇고 아직재정이 안정되지 못한데서는 그냥눈흘감고 지나가기로된모양이다

그러고 기독교방면의 각학교에서는『보—너쓰』는 업는것이 한불행한 전통이 되여와서 선생님네들은 역시괴롭다

鑛仲介料七千餘圓 不當還取코被訴

一審二審에繼續하야敗訴코

被告金秊洙氏再次로上告

은행두취로 조선실업계의 거두인 천만장자 광산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엿다는 고소를 이르컷든 결과로 말미암아 사건은 다시민사소송까지 이르키게되여 일심 이심을 거처방금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잇다 원고는 시내락원동(樂園洞)팔십사번지사는 김성근(金成根)이라는이요 피고는 해동은행(海東銀行)두취로 방금시외성북동(城北洞)에사는 김년수(金秊洙)씨이다 원고 김성근씨는 피고김년수씨를상대로 부당리득금(不當利得金)칠천팔백사십원 반환청구소송을 얼마전에 경성지방법원에 이르켯든것이다

원고김씨의 주장하는 리유는 이러하다 강원도 강릉군 옥계면(江陵郡玉溪面)에 잇는 최봉수(崔鳳秀) 문석진(文錫晋)량명 공유의 금광이 잇섯는데 작년이월이십일에 원고김성근 씨는그광주최씨로부터 그금광을 팔어달라는 부탁을밧고 매매를 성립시키면 그중개료로 이할이상을 내겟다는 언약까지 잇섯다

그런데 그때 마츰 장보형(張輔衡)이라는이가 리강호(李康昊=김년수씨대리인)씨가 그광산을 사고시퍼한다는 말을전하므로 원고김성근씨는 중간에 서서 알선하야 작년 삼월이십팔일에광주 최봉수씨와 리강호씨사이에 그금광을 오만이천원으로 갑을정하야 매매계약을 작성시켯다 그리고는 김년수씨의 소절수 이만원을 그대금가운데서 우선바덧는데 그때에 중개인김씨는광주 최봉수씨로부터 대금 잔액을 전부밧게 될때에는 일만이천원을 중개료로 내겟다는 게약을 바덧다한다

그뒤 그달 명십일일에 광산이 전등록수속을 마친뒤에 나머지대금 삼만이천원은 바더서 그가운데서 일만이천원은 중개료로 바덧는데 피고 김년수씨의 대리인 리강호씨는 그것을 사기(詐欺)라는 의미로 강릉경찰서에 원고 김성근씨를 상대로 고소를하야 작년 사월십팔일밤 열시쯤에 원고 김성근씨가 시내 명월관로리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잇는동에 강릉경찰서 형사부장 칠산(漆山)순사와 김헌동(金憲東)순사 두명이 차저와서 본정경찰서(本町署)로 데리고 가서 중개료로 바덧은 그돈을 김년수씨 대리인 리강호씨에게도로 돌려주지안흐면 구인(拘引)할터이라하고 다만 그돈을 한거번에 내여놋는다면 불구속으로 취조하겟다고 위협하엿다한다

그러나 김성근씨는 그것을 응하지안햇더니 그달 십구일에는 그 형사들은 김씨의 가택을 수색하야 현금 천원을 압수하고 김성근씨가 친구 홍윤규(洪潤圭)라는이에게 꾸어주엇든 돈삼천원을 바더드리고 또 조치원(鳥致院)에 사는 김재원(金在元)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바들돈 이천원을 심부름군을 보내여 일부터 바더오게하고 또다시 칠산형사는 원고 김성근씨를 데리고 한성은행 서대문지점으로가서 원고 김씨가 근저당게약(根抵當契約)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수속을 해두엇든 삼천오백원을 찻게하야 전후 합게 구천오백원을 강릉경찰서형사가 손에 바더 쥐고서 그달 이십삼일에 원고김성근씨를 강릉경찰서로 데리고 갓다한다

그리하야 그돈을 김년수씨의 대리인 리강호씨에게 돌려주라고 강청하면서 욕하지 안흐면 검사국과 예심(豫審)으로 넘겨서 취조를밧게하겟다함으로 강릉경찰서에 구인되지 나흘만에 부득이 승락을 하엿더니 칠산형사는그달 이십칠일에 그도가운데서 칠천팔백사십원을 피고김년수씨에게 건너주고서 비로소 석방하엿다한다 그러나 원고김씨는 결코피고 김년수씨의 대리인 리강호씨를 속히임은 업고 원 광주인 최봉수씨로부터 당당한 중개료로서 적법(適法)으로 취득한것이오 피고 김년수씨가 강릉경찰서 순사로부터 바든 돈은 법률상 아모 원인(法律上原因)도 업시 바든것이므로 반환을청구한다는것이엿다

경성지방법원에서는 금년 오월십륙일에 산근(山根)재판장으로부터 원고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야 그청구대로 피고 김년수씨는 돈 칠천팔백사십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렷섯다

그런데 피고 김년수씨는 이것을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으로 공소하엿든바 그법원에서는 그광산을 감정(鑑定)해본 결과오만이천원짜리가 못되고이만원짜리밧게안되니 이만원에 대한중개료로이할을 계산하야 사천원쯤주는것이 적당하다하야 이미 김년수씨로부터 그광산 매매당시에 이천이백원은 주엇슨즉 그나머지로 일천팔백원만 더주라고 지난시월이십일일에 소송(小松)재판장으로부터판결을 하엿다

이판결에 대하야 원고김씨는 불복상고하엿고 피고김년수씨역시 불복하고 부대상고(附帶上告)를할것이다

景氣指針인 助興稅激增

市內서毎日九千餘圓

해마다 년말이되면 공연히신이들먹들먹해져서 그부회경기는 유흥계에 가장솔직하게 반영된다 금년에도 지난시월중에 경성부세무과에 요리집과 기생들이 바친조흥세(助興稅)는 일본내지인측이 오천륙백사십륙원사전이오 조선인측이 삼천사백십구원사십사전이고 십일월분은 일본내지인측이 오천삼백칠십팔원륙전이오 조선인측이 삼천륙백칠십구원오전이다 이것을 작년동기에 비교하면 시월에는일본내지인측은 일천륙십팔원칠십륙전 조선인측은 팔백팔십삼원이십팔전이 각각느럿고 십일월에는 일본내지인측은 륙백오원이전 조선인측은 팔백사십원사십삼전이 역시부럿다

直訴하려든 不敬漢

鹵簿를犯해

【東京電話聯合】이십륙일오전열한시 십칠분에 의회개원식(議會開院式)에 친림하서다 환행하시는 천황폐하(天皇陛下)공식로보(公式鹵簿)가 축전정(祝田町)부근에 다달엇슬때 봉배자중에서 나히 사십사오세된 남자가돌연 로보압흐로 쪼차나오는것을 경게중의 구송서(久松署)원이 체포하야 취조한결과 그는정교구백목(淀橋區柏木)이정목 생선장사 소출수야(山出秀也)(四三)로서 품속에는 직소장(直訴狀)을 가지고잇서 방금계속하야 엄중취조중이다

士兵被害五十六件

총독부 외사과의 조사에의하면 십일월중에 함북대안간도지방에 재주하는조선인으로 무장단에피해를 당한 건수는 오십륙건으로 피해인원은 이십팔건이며피해액은 구백여원에달한다고한다

天氣豫報

高氣壓은 朝鮮、滿洲國境內陸으로부터 朝鮮及 本洲地方에퍼지고잇다 七五六미리의低氣壓은 沖繩附近에잇서 徐徐히東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滿洲로부터 朝鮮의中部까지는맑고 南部는흐리다 日本內地는東北地方이맑은外 他地方은흐리다 九州地方에는 小雨가잇다 朝鮮半島의氣溫은 昨朝보다 五度內外낫하젓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東風이잇고 흐리다 京畿道全區도 東風이잇고 흐리다 明日도 今夜와갓다

昨日最高 五度九 最低 零下十度三
今日 朝 零下二度八 正午 六度

明日奉天서열릴 올림픽氷上軍送別競技

興味이끌日眉의對峙

氷上競技의 先進國 歐羅巴의諸强과相戰하야 世界氷上界를 制覇할鬪志를품고 故土를떠난 우리의 스포—츠使節 金正濟、李聖德、張祐植諸君은 그동안奉天國際링크에서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는바 來三十日의 出征을압두고 明二十八日과 二十九日의兩日間에열릴 送別競技大會는 三選手로하여금 別다르게 興奮과緊張속에 싸이게 할것이다 이날의記錄은 世界올림픽出場에버作成에 重要한 參考資料가 될것일뿐아니라 國際舞臺에 進軍直前의 記念할 最終의競技大會인지라 一般스포—츠편들의 關心은 오로지同大會에 달부을리게되엿다 이에 簡單한 前記錄을 抄해보기로하자

奉天의氷質은日光보다 훨신단단하고 그우에每日가티 猛練의갈녀서 스케—팅의速力을주릴念慮도업지안타 그러므로 今春一月에 日光에서作成한 記錄以上의것은 바라기어려우나 當日의 氣溫만 알마즈면 意外의 好記錄을豫想케한다 二十七日午前六時의 奉天의氣溫은零下五度임으로 이만하면二十八日도 비슷하다고보아 快記錄을 作成할것으로 期待된다 이날은 올림픽代表六名外에 全滿洲의一流選手九名과諏訪의小池選手等合하야十六名이 出場할터로 마치도 全日本選手權大會를 奉天에서 開催하는셈이다 따라서 올림픽代表들은 相當한責任感을 늣기지 안흘수업을것이다 當日의番組는 이미紙上에發表하엿거니와 그中에서 一層興味를 이끌것은 먼저▲五百米레—스에잇서는 가장人氣의焦點이 되여잇는 李聖德과石原의對峙! 이는今春올림픽後選에 石原選手가 四五秒五로一着이엿고 李君은四五秒九로서 十分之四秒의僅少한差로 二着에떠러젓다 氷上競技는 그相對의强弱에依하야 記錄의遲速을相伴하게되는것임으로 兩君의對峙는 記錄更新이 따를 一大激戰일것이며 現在의 『컨디숀』으로 보아 六對四로 李君이 有利하다고 본다

▲다음은 千五百米中에서 白眉의 一戰을 추려 뽑으면 金正濟과 李聖德의 一戰이다 이는 金君의 最高記錄 二分二八秒에 比하야 李君은 二分三一秒二로서 三秒二의 큰差를 보이고 잇스니 金君의 王座에 肉迫할 李君의巧妙한 베—스는 豫想과는 判異한 結果를 내일는지도 모른다 只今까지 千五百米에서로 對峙한 일이 업고 따라서는 短距離에 빠른 李君으로서는 千五百米까지는 넉넉히 金君을 追從할 自信을갓고잇스므로라스트·스파—트의 强味를 가진 李君으로서는 一條의希望이업지도안타 李君이選手權을 金君에게뺏앗긴以後로 모르긴도 처음인것은 好機일것이다▲다음으로 五千米인데 이中에는 張祐植과 安達(全滿選手權保持者)의 一戰이다 兩君은 今春에도 서로어울려安達君이 敗北한뒤이라 『홈링크』의『컨디숀』을 獲得한 安達은 張君에게 肉迫할터임으로 此一戰은 『一騎달리』興味를 이끌고잇스나 結局安達君이 再次苦杯를 들것으로 豫想된다 最終의一萬米는出場者를 五百米、千五百、五千米의得點合計第一位로부터 第十位까지로 限定되여잇슴으로 그番組는 豫測키어려우나 此種目은 金、李、張三君의 獨으로될것이며 滿洲의安達君이 그뒤에 肉迫할것이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四種目에 亘한 綜合選手權의 位도亦是우리 三勇士들로서 首位를 獨占할것이라고밋어지며 東洋을 떠나는 告別의 一戰에서 世界記錄을 肉薄하는 驚異的 記錄을作成하기를 바라마지안는다 (KO生)

日光中等氷上 邊君二着

劈頭千五百米에

【日光電話聯合】全日本學生氷上競技聯盟主催 第四回全日本中等學校氷上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日光細尾링크에서열리엇는데 前日의降雪때문에 링크整理上 入場式은定刻보다느저서 擧行되엿다 그리고 競技는 『아이스·하키—』(優勝戰)、스쿨피규어로부터 開始되여 氣溫零下二度『컨디숀』은 良好하다 參加校數는『스피—드』에十、『하키—』에十、『피규어』에三、總合二十四校에 達하는盛況을 이루엇는바『아이스·하키—』第一回戰에서 京城商業은 九對一로 慶應普通科를擊退하엿다

京城商業9 (5—0 / 4—1 / 0—0) 1慶應普通

그리고 스피—드部의 千五百米레—스經過는 다음과갓다

◇千五百米(세파레—트)
▲1木谷清(新義州商業)二分四二秒三(中等新記錄)▲2邊成厦(新義州三務校)二分四二秒六
▲5李英中(新義州高普)
【得點新商六、三務五、新高一】

國際올림픽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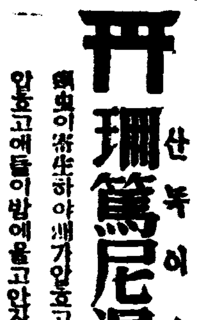
明年七月伯林에서

【東京電話聯合】第十二回올림픽開催地는 東京이냐 『헬싱키』냐를 最終的으로 決定할 一九三六年度國際올림픽 委員會는 第十二回올림픽大會開催를 앞으로明年七月三十·三十一日兩日間 伯林市『호리—드리히헬』大學大講堂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朝鮮學生陸上五傑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에서는今年度의 朝鮮大學、高專學生陸上競技五傑을 發表하엿는데 朝鮮人學生만의 順位와 記錄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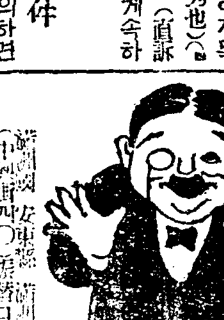
▲百米=第一位 一一秒二 金鏞元(普專)
▲二百米=第一位 二三秒八 金鏞元(同上)
▲四百米=第一位 五三秒F 金鏞元(同上)
▲千五百米=第二位 四分二七秒六 鄭泰燮(普專)
▲五千米=第一位 一七分五五秒二 鄭泰燮(同上)
▲高障礙=第五位 一八秒一 韓京鎬(大撿)
▲中障礙=第一位 六二秒二 金鏞元(普專)
▲走幅跳=第四位 六米二七 金鏞元(普專)
▲三段跳=第五位 一二米五六 金鏞元(同上)
▲投砲丸=第二位 一〇米七二 安榮植(普專)
▲投圓盤=第一位 三五米〇二 朴貫圭(普專) 第四位 三三米九三 安榮植(普專)
▲投槍=第二位 四七米四一 金榮植(普專)
▲投鎚=第二位 二九米〇三 安榮植(普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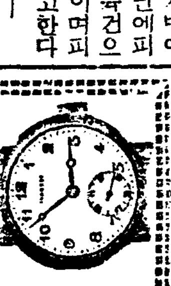

蛔虫驅는데 맛잇고잘듯는 珊篤尼涅菓子 산독이날과자
蛔虫이生하야배가압흐고齒이나고가슴이압흐고에들이밤에울고안자는데는 珊篤尼涅菓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吉崎大海堂 セメンヶ菓子

契約高參千貳百萬圓
加入者本位의無盡
一、當社經營無盡은純東京式
一、掛金은無遞減均一式
一、無盡種類는五千圓會·參千圓會 貳千圓會·壹千圓會 每回入札給付
福德無盡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代表電話本局五一八一 振替口座京城一二〇五五番

美髮料 美品포마—드

嚴冬은왓다! 感氣의警戒期! 感氣는萬病의根源이니 初期의 감긔와몸살에最新特効藥
ヤマピリン 야마삐린
藥効를實驗키爲하야無料로進呈합니다
全國有名藥店에잇스나萬一品切時는京城本町木村藥房又는下記本舖로注文하라
朝鮮日報讀者라記入 二錢切手添付申込하면二十錢包無料進呈
藥價 20錢 30錢 50錢 1.00
株式會社 山本回生堂製藥所 兵庫縣美囊郡細川


性器强大靈藥
瑞廉士大醫生新劑 清導補腎丸
二週分 三圓 四週分 五圓五十錢 六週分 八圓 (先金送料自擔)
說明書進呈
滿蒙特産物商會


無稅港大連經由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商報進呈

好職業
男女老幼不問自宅執業○動人學生 ...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아리랑고개
朝鮮映畫京城撮影所第二回超特作品 同時錄音 朝鮮語全發聲
正初同時封切
京城 東洋劇場 京城 優美館 大邱 互樂館 平壤 金千代座 新義州 國境會社
全鮮配給 高麗映畫社 京城·鍾路

實効散
感冒解熱特効藥
겨울의威脅 感氣의襲來에 實効散
危險한中毒과副作用업고自然히爽快하게下熱된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東京市神田區明神下 實効散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
NO.133

山葉ピアノ
參拾円以上各種
カタログ進呈
子女를爲하야꼭

京城鍾路二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光48番
竪型 五百円以上各種
平台 壹千円以上各種
山葉オルガン

모르면 큰실수 電氣(전기)의위험은여기

부인네도반드시아라두어야할일 대개섯불은짓에동티

근래에와서는 여러가지로 전기의시설이향상되여 우리일상생활에 편리한점이 퍽만습니다 그러나 그와가튼비례로 전기로부러오는 사고가는러가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전기사고에대하야는 당국에서 취체하는규측이잇서 전기일에종사하는사람、전기기구、배설에대하야 감독은합니다만 일반가정에서도 전기에대한 조고마한상식이라도 가지지안호면 뜻하지안흔 사고를이르켜 화재며、생명의위협까지밧게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는 어떠한경우에 위험이잇스며 엇더케주의를해야 될까를 말슴드리겟습니다

습기가잇스면 감전되기쉽다

습기가 잇스면 전기가잘통합니다 그럼으로 전기줄 전등전기다리미나 풍로가튼데 습기가끼게한다든지 물무든손을 그런데댄다든지 하지마십시요 그러고 비단 어떤전기 기구든지 스위치이외에는 섯불리손을 안대는것이 조흡니다

전등을직접 쇠못에걸지말일

전기줄을 다른 금속물에 접속하는것도 사고를 이르키는원인이되는수가 잇습니다 가령말하면 전등스줄을 이리 저리 옴길때 쇠못에 직접그대로 건다거나、줄을 고리지어 거는수가잇는데 여러번 이러면 줄에입힌것이 벗겨저 그속에잇는 철사사와못이 맛다게 되어탈이 생기게됩니다 그럼으로 전등은 그대로 걸지말고 반드시 노끈으로 고리를지어 못에걸도록 하십시요

밤에잘때 전등을씨우지말일

밤에 잘때 눈이부시다고 흔히 전등에 보재기를 들씨워두는분이잇는데 이러케 오래동안 계속하면열스도가 지나처 생각잔튼 일을 저지르게됩니다 그럼으로 눈이부시거든 눈부시지안는 전등(여러가지색으로된것도 잇고특수하게만든것도잇습니다

이상한기미잇거든 곳안전개폐기를열라

전기스줄이나 전기기구에서불이 번쩍번쩍 난다든지 그외에 이상스런기미가 보이거든 얼른 안전개폐기(安全開閉器)를 여러노으십시요 이안전개폐기란것은 집집마다 다잇는것인데 가족들에게 이것이 잇는곳을 잘일러두십요

납철끈어젓슬때 반드시새것으로

파도한 전긔가 통하면 (전등스줄에다 전긔다리미나 전긔풍로 다)울끼시도록하십시요

…굴이 가튼때안전개폐기에잇든 휴-스(소위 납줄)가 끈허지는데 이것을 수리할경우에는 반드시 새휴-스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러지안코 구리철사나 다른철사로 니어노흐면 전긔가 아주 통하게됨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전기스줄을 자주옴기지말일

전등선을 자주 이구석저구석으로 이동식히면 자연히 줄이상하게될뿐더러 껍데기가 벗겨저서 속철사가 빼어저나오게되면 역시위험합니다 그럼으로전선줄이 상햇거든 줄을가라대도록하십시요

전선잇는거리에서 연을날리지말일

시가지 행길에서 연을 날리다가 연스줄이 전선에 얼키면 전선스줄이끈허지는수도잇고 또는 감전(感電)이 되는수도 잇슨즉、공중도덕으로 보던지 자기몸을 생각해서라도 시가지에서 연을 날리지맙시요

사용전기량을 초과하지말일

『띠뿔소케트』를 사용하야 불을맘대로 켜면서 전기 다리미를 사용하는 수가잇는데 이것도역시 오래사용하면 자미업습니다

"감기기운잇거든 파를자시요"

다른데도잘듯는파의약효

겨울과 감긔는 서로떠날수업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겨울철에 감긔가 잘든는것은 여름철에 몸옥잘돌보지 안흔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방에불을 과히 때분아니라 방풍 장식이 만흐며 사무소등에 란로를 장치 하기때문에 륙십도부터 칠십도의 온도인방에 잇다가 별안간 밧갓테나와 찬냉긔를 쏘이게됨으로 감긔가 잘듭니다 시골서는 방안에 방풍 장치가 불완전 하기때문에 밧갓 온도와 크게 차이는 업스나 식전과 밤은 특히 냉긔가 강하기때문에 새벽 일슥 이러나는 로인과 아해、또는 밤에 외출하는 사람들이 감긔가 만히 듭니다 만약 감긔가 들거든 지체하지말고 곳부엌에가서 파를 사용하십시요 파 흰 부분을 뿌리로부터 두치쯤 잘라서 잘게 써러서『우메보시』한개를 구어 너코 또 된장 조금만(콩낫만치) 찍어너허 펄펄끌는 물을 부어 한공긔쯤 먹고 땀을 푹 내면 의사의 신세를 지기전에 낫습니다 파와 살구와 된장을 한꺼번에 사용하는것은 파만으로는 땀나는 작용뿐으로 모공을 여는대 불과합니다 반대성질의 염끼가잇는 살구와 된장으로서 조화를 식키는것인데『아스피링』으로 땀을내인때와가티피로하는등의 부작용이업시 잘조섭되는 효능이 잇슬뿐 아니라 파는 어린애기가 코가미여서젓을잘 빨지못하야 애를쓸때 뿌리로부터 한치가량 끈어서 코에다 대거나 파를 갈나서 코스등에 덥허두어보십시요 기묘하게도 맥킨코가 티워집니다그리고 귀스구녕에 버려지가 드러갓슬때 파를 가늘게 써러서 귀스구녕에 너허 두면 버려지가 자연히 나옵니다 또 코피가날때 끄려먹으면 출혈을 방지합니다 몹시 잠오지 안는밤이잇지요 그럴때 뿌리에서부터 한치를 끈허서 벼개위다 언고안자도 잠이잘옵니다

이상과가티 약품적으로는 흰부분이 잇스나 건강에는 흰것과 푸른닙흘 석거서 먹어야조습니다 푸른편은 열성분이고흰것은 냉성분임으로 양성분을석거서 먹어야 조화가됩니다 그리고 평과 생파를 일시에먹거나 생파와 꿀을 일시에먹으면 설사를 하게되니 주의하십시요

살찌는사람과 빈혈되는사람

류마찌스환자에두가지 식이요법도다르다

압흐로 날이 차차 치워가면급성、만성『류마찌스』때문에 욕보는분이 만습니다『류마찌스』를 조선에 무슨병이라 말해야조흘까요——대개 담결리는병 신체의어느 한곳이 원인모르게 저리다거나 쑤시는 것도『류마찌스』에서 오는수잇습니다만——엇잿건 만성『류마찌스』가 되면 오래동안 영양불량이되어 이되기쉬운 사람과 그반대로식욕이 왕성해서음식은 만히먹으나 병때문에 몹시압허 분동이 부족되어 살이퉁퉁히 찌는사람도 잇습니다 즉 비게가 몹시 오릅니다。이가티 만성『류마찌스』환자에 두가지 형이잇서서 어느정도까지나 식이요법(食餌療法)으로 고칠수는 잇스나 그방법은 에드러서는 전혀다릅니다

◇

먼저말한 빈혈이 되는환자인경우에는 살찌는 료법으로『카로리-』만흔 음식과『비타민』을 먹고、또 할리가유(含撲肝油)라든지 동물의간장(肝臟)을 만히먹고、또일광욕이며 신선한공기를 마시어야할것은 물론입니다 그다음 똥똥해지는 형의환자편은 먼저와반대로 먹는것을 적게먹고흔흔 특별히 탈지요법(脫脂療法)을 할필요도 잇습니다만 살이찌고도 더구나 푸석푸석한기가잇는환자는 기아요법(饑餓療法)을하면 매우효과가잇습니다 또는일시적으로수분과염분(鹽分)을제한해서 먹지안도록하면 만성적으로 작용하는 병독을 미약하게하야 드디어 병독을 업시하는 작용까지잇습니다。

◇

엇잿든 살이 찌는환자의 경우에는 먹는음식을 제한해야되고 음식중에 되도록 소곰기운이안들게 축짜지안케 해먹어야됩니다 소곰이 만히 들면 관절염이 더악화하게되는 까닭 입니다 그리고 야채、과실을 만히 먹을도리를해야됩니다。음식이싱거워서 먹기힘들때는 소곰이나간장대신에 무염장유(無鹽醬油)、『오이구사-룬』『구루다사-룬』등약품을 석그십시요

▽……새해를차저서……△

거리의붉은신호 한눈파지말일

어린애들내놋는건부지럽다

어린애들이 거리에서 노는것은 마치 움률스가에서술래잡기하는셈으로 매우위험한일입니다 엇잿든 교통이 빈번한데서 아이들을 놀게하는것이란 부모들의 부주의라고를수박게업습니다 도회지 특히종로거리와가튼 상점이 드러찬지대에는 아이들의 놀곳이업서서 별로나오지 안호니까문제업지만 의만큼번화한 보통큰거리에는 아이들이 항용나와서 뛰어다니는데 각가정에서는 결코이런일이 업도록늘어린애들을 단속해야할것입니다 첫먹는 어린애를 거리에 내노흐면 그의부모가 경찰령(警察令)에의하야 처벌당하는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이것이 무섭다느니보담살가리와다갓다하는 자동차、전차、자전거에 치우는날이면 엇던결과가 생가겟나 하는것을 생각한다면 소름이 끼칠노릇입니다

교통이 빈번한곳을 지나다가어린애가 방황하거든 어른들은 반드시 그애를 거두도록 하십시요 내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애라고 하드라도 무관심하게 지나칠일이 아닙니다。그리고 대에서 어린애들을 밧게 내보내실일이 잇거든 반듯이 어른을 딸려 내보내시고、학교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잇거든 아침마다 길거리를

잠항섬 하라버지

바다스속으로 괴어다니다가 적의 군함만 보면 때려부시는 무서운 잠수함(潛水艦)이것은 칠십년전에 맨들어슨 고래형상의 잠수함으로 이를테면 오늘날 잠수함의 할아버지스벌 지금 뉴욕 해군제선소에보관되어 잇다나요。

醫學

밤오좀

問 당년열네살되는 녀자인데 당지 보교륙년생임으로 상급학교에 갈준비를하나 밤에잠을잘때에 요에다 오좀을 늘싸게됩니다 그래서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게될것갓하야 대단히 고민하는중이오니 이병에대한 약과방책을 가르처주시옵기를바랍니다 (一讀者)

答 당신의병은 야뇨증(夜尿症)인데 이병에대한원인이 만흐므로 몬저 그원인을 제거하는것이 필요하지만 진찰하기전에는 그원인을알수업는고로 우선다음 멧가지를 해보시요 저녁식사에는 될수잇는대로 수분을 절감하고 자기전에 반드시 소변을보고 그외에자극될음식물 즉고추가루 게자등을 금하야됩니다 때의 주의를 일러보내실때의 …라 길이 좀 머리진다하지라 도될수잇는대로 번화한것을피하도록 하는것이 조켓습니다 잘때에 허리아래를 놉게하야 리머리보담 약상호기를놉게하는것이 조흡니다 약으로는『갑-뜨닌』을써보시요 이병은 낫기의병이 아닌고로 조금도 고민하지말고 시험준비에 전력을다하시요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기침뒤가슴이아픈데

問 一、금년륙세된 녀아인데 오래동안 백일기침을하다가 이주일전부터 기침은낫고 잘놀다가 이주일전부터 기침을하는데 기침하면 가슴이갈금아프다고합니다 이치료법을가르처주시요 二、철마다에 계란을 먹이는것이 조흡니까 이병에무슨약이 조흡니까

答 一、기침뒤 가슴이갈금 아프면 흉늑막염이 의심됩니다 만다른증상이업스면 대단한병가지안씁니다 다음약을써보서요

에바닌 一、〇
아스삐린 〇、五
乳糖 〇、六
右一日量分三回服用

二、계란먹이는것이 조흡니다 붕산수로 자조씻고라-ㄷ目藥을눈에너보시요 (城大小兒科 李聖鳳)

童話 숩속의신선 ②

崔秉和

이러케 지내는동안에 약속한 칠년이 되엿습니다。그러나세상일을 죄다 이저버린 숩속의 신선은 두형과의 약속도 이저버리엿습니다。오늘도 다른날과 가티 적은새들의 노래에만 귀를기우리고 조화하면서 잇스려닛간 작은새한마리가 『신선님! 당신의 두분형님께서 약속한곳으로 가십니다』하고 일러주엇습니다。그래서 숩속의신선은 비로소 칠년전 약속한것을 생각해내고 만흔작은새들과 작별하고 약속한곳으로 급히 갓습니다。숩속의신선은 겨우 성요한제날아츰에 약속한곳에 왓습니다 두분형은 끗테동생을보고 놀낫습니다。하여간 일곱해동안 숩속에서 신선과가티 지내스므로 옷은갈갈이 찌저지고 머리털은 덥수룩하게 덥히고 그우에 나무입사귀와 새털이 한우큼식부터잇음으로 놀나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이 일곱해동안 거지로 지내지도모르겟다』하고두분형님은 기가막혀서 가지고온비단옷을숩속의신선에게 입히고 그리고 엉크러진머리를 물로씻고 빗으로 빗겨가지고 삼형제는 가즈런히 어느큰주막집으로 드러갓습니다

끗테동생은 두형님이 다 훌륭한분이된것을 놀낫지만 오래동안 숩속에잇서서 구차한살림을 겨거왓스므로 별로히 부러워하지도 안엇습니다。

세사람이 술을먹고 잇는동안에 한사람가히 ... 간 그새는 놀나운말을하고잇섯습니다。『형님! 형님! 형님께서는 저새가 무슨말을하는지 아시겟읍닛가』동생이 이러케말하닛간두형은 눈을크게뜨고『그것을 엇더케안단말이냐 새가아니다음에야』하고 펀잔을주엇습니다。『그러나 저는 잘아는데요。새는악가 이주막집 구석에잇는돌밋테 보물이파뭇처잇으니 어서파내서 부자가되라고 말하엿읍니다。자-가리가서 패여봅시다』 두형은 끗테동생이 밋치지나 안엇나 하고 생각하엿지만 너무나 진정으로 말하는듯하므로 어느듯 허허실수로따라갓습니다。어느듯 세사람이 함께땅을파보닛간 과연 보물이 갓득들엇든 큰항아리가 나왓습니다。세사람은 너무조화서 아버지계신 집으로 도라갓습니다。아버지와 아들 네사람은 이가티 즐겁게 지내오는데 어느날 숩속의신선은 또 적은새가 무어라고 짓거리는소리를 들엇습니다。그래서 귀를기우리닛간 적은새는 귀여운목소리로 『이바다 저쪽에는 섬이잇습니다。그섬에는 놉흔놉흔성이잇고 성속에는 아름다운 공주가뫼시잇습니다。누구든지 공주님을 구해내고 납븐놈을 조차내는사람은 성속에잇는 금과은을 손에널수가잇읍니다』하고 말하고 잇섯습니다。

그리하야 숩속의신선은 이것을 두형에게 이약이하고 공주님을 구하야 가기로 의론이되엿습니다。

섬으로가는 바다는 무서운바다로 도저히 보통배로는 건너갈수가 업스므로 세계제일이라는 배목수 둘재형이 엇더한폭풍이라도 가라안지안는 튼튼한배를 맨드럿습니다。세사람은 이배를타고 떠낫는데 얼마안가서 몹쓸 비바람을 만낫습니다。그러나 원체 튼튼한배이므로 아모랄업시 섬에 오르게되엿습니다。

보닛간 그섬에는 하날을 찌를듯한 놉흔성이 서 잇섯습니다。보통사람가트면 도저히 기여올나갈수가업지만 큰형님은 병정으로써 무엇이든지할수잇고 더욱이 성잘올나가기로 세계제일이므로 조금도 주저하지안코 자기몸에 바줄을붓드려매고 한손에 단단히 칼을쥐고 성담을기여올나갓습니다。

둘재형과 숩속의신선은 아래서 무사하 우까지 올나갓스면하고 가슴을태우고 잇는사이에 큰형은 태연스럽게 엉큼섬큼 기여올나가서 창속으로 사라저바리엿습니다。두사람은 겨우 안심을하엿습니다。

큰형이 무사하게 성속으로드러가닛간 그곳에는 아름다운공주님이 묵키여잇섯습니다。

『나는 공주님을 구하라온사람입니다』

하고 귀속말을한다음 즉시 공주님에게 긴-바줄을매고 성아래로 내려보냇습니다。아래서기다리고잇든 두사람은 즉시 공주님을 밧들어서 바줄을 풀너드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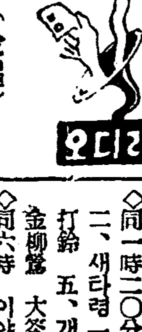
그때 성안에서는 납븐놈들이 큰형을 둘너싸고 죽일냐고 하엿습니다。그러나 큰형은 즉시 칼을빨아들고 납븐놈들을 한사람도 남기지안코 모조리 죽여버리엿습니다。그리고 성문을잠근 장을쇠를 비틀어제친후 문을열고 다음에 두동생과어공주님을 불너드리엿습니다。

성안에는 눈이부신 보물들이 굿득굿득 싸혀잇섯습니다。그래서 삼형제는 급히 그보물들을 몃뭇금에 묵거가지고 배에실헛습니다。그리고 공주님을 배에 타시게하고 배를띄웟습니다。

도라가는길은 바다가 잔잔하야 모다 즐거운빗치 얼골에 낫타낫습니다。얼는 그리운집에도 라가서 아버지에게 보물을 보여드릴것을 생각하면서。(끗)

府民館에서映畵會

京城聯合靑年會主催로 오는一月一日부터三日間(一日三回)府民館에서 映畵會를연다는데 映畵는 人生初年兵(P・C・L)과 西部戰線小僧(유나이데드)二유-모어物。



二十七日(金曜)

◇午後六時 吹奏樂 救世軍育兒院밴드 指揮 W・E・노-벨
◇同六時二五分 講演 敎育과敎化問題 李寅基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一) 金雄珏
◇同八時 名作流行歌(第一日) 一、順風에돗달고 二、먼동이틀때 三、流浪의哀愁 四、아득한千里길 五、님이여잘잇거라 姜弘植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二〇分 箏律 靈山會像 玄琴李彥植 洋琴李承煥 奚琴池龍九 短簫洪斗憲 細笛稙敎 杖鼓李章夏
◇同八時五〇分 連續野談 방아打鈴(一) 申鼎言

二十八日(土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打鈴 二、굿거리 三、山念佛 四、靑春歌 五、방아타령 六、아리랑 洋琴 崔壽成 奚琴 池龍九 細笛 高載德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各國의歲末 金庠基
◇同六時 이야기 今年中에생긴 重要한일 朝鮮中央日報社會部長 朴八陽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韓普容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二) 金雄珏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半葉 三、弄 四、界樂 五、編 安[illegible]仙 鄭在[illegible]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朴應冕
◇同九時 獨唱 一、카로미오벤 조르다니作曲 二、또──냐…백길作曲 三、거룩한城…아담스作曲 四、라-르고헨델作曲 五、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六、들薔薇…슈-버-트作曲 高宗益

二九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歌詞 一、길軍樂 二、黃鷄詞 金鳳仙 文明仙 大笒 金永根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童謠와唱歌 一、齊唱 가을 二、同做風 三、同개고리노래 四、獨唱 旅愁(洪雲波) 五、齊唱 옥토끼 六、同자장가 七、同가을바람 八、쪼껴난동생 伴奏 金靜波 指揮 申湖涉 宗橋童人會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名作流行歌(第二日) 一、相思의根 二、첫사랑의根 三、廢墟의落照 四、연지의그늘 (金福姬) 五、放浪者의노래 六、櫻櫻花 七、봄비 (申蘭秀) 七、서울打鈴 (申蘭秀 李東漢 洪甲得) 伴奏 DK오-케스트라 金福姬 申蘭秀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并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并唱 (가)短歌 (公道難) (나)唱劇調 瀟湘八景 丁南希 鼓手池龍九
◇同八時三〇分 古談 換婿救夫 李雲林
◇同九時 新民謠 一、流士歌 二、織婦歌 三、春踊歌 四、新사발가 五、新방아打鈴 曹松岡 伽倻琴、金文春 細笛、高載德

三十日(月曜)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一、불루-하와이 二、새깜안눈동자 三、山谷의등불 四、속아도조와요 五、원더바- 六、라스파노라 七、라모나 朴璣嬉 피아노 金基邦 하와이안기타・아코듸온 全壽麟
◇同一時二〇分 새타령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鄭柳色 金柳鶯 大笒 朴鍾基
◇同六時 이야기 今年의兒童文藝에對하야 李軒求
◇同六時二五分 講演 理論과實踐 朴鍾鳴
──◇우슴의밤◇──
◇同七時三〇分 漫談 黃材景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皐皐天邊 二、唱劇調 春香歌中御使出道에혼나는대 宋萬甲 鼓手韓成俊
◇同八時三〇分 흉내 張明浩
◇同八時五〇分 라듸오 코메듸 來日은五百圓만 朴珍案 라듸오、푸레이미링 演出朴珍 效果效果班

曆

十二月廿八日(土) 十二月建己丑(小)初三日 戊寅 土 胃 滿
●裁衣・動土・上樑辰時・開市・納財에宜함
●大寒八日(舊月十二日)
●冬至二十三日(舊月廿八日)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チミツシン (지밋신)

무서운기침병의 류행기가왓습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시사 감기・폐염・홍역・백일해를 미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백일해・홍역

기침병중에도 가장 고통이심한 백일해 홍역의 특효약으로 구미각국에서 유명한 「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유효하며 더구나 극약청분과마취성분이 조곰도 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임니다。

그러므로 권문가의림상치료에도 눈칭찬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끄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쇠약을방지하고밤잠을잘자게만들어줌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은기후와로질의관계로 특히 밧튼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극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려가업시잘듯고 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준다고 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습니다。

어느가정에도 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적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위험한기침병을 예방하여주며 잠을잘자게하고 자는동안에 병중에의악화를방지하며 컨쾌를빨으게함니다。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TY-K-29

冬天星象 ④

悲話主人인"雙童" 全天首位인天狼의耿光

安在鴻

以上 가을의 별인 안드로메다의 奎宿로부터 婁、胃、昴、畢、觜、參까지는 西方七宿로서 白虎 혹白虎之精이라고하는者이니 그中에도 觜와參은白虎之象이오 婁、胃、昴은『虎의三子』요『觜、參은 衆鬚하되 觜首參身也』라고 해서 司秋司金 司西方하는 法의 解說이 잇는것이니 五行思想에 依한 白虎圖가 怪奇의 白獸으로된 理由이다 어머니인五車星의 바로아래 北으로 조금 닷은곳에 光彩나는 一等의雙星을 北에두고 二列로나란히 된 일곱여덟 큰별들이 거의 井字形으로 되엇스되 그左右에도 四五等星이 활개를벌린듯이 박혀잇는것은 井宿이오 두큰별을 머리삼어 오뉘인 『雙童이』로 되엇스니 陰陽宮 혹 雙女宮의 原座로 된바이다 朝鮮에서는 범에게쫏거여 올안의 감나무에 긔어올랏다가

하늘 에서 나려보낸 銀동아줄 銀바석을타고 銀河水기슭에 올러가서 永遠히 무서움모르는 별님으로되엇 雙童이라고 한다 이이약이는 뒤로밀고 希臘神話에서는 두큰별을 『카스토아』와 『폴룩쓰』로삼고 두별로부터각각 一列식을 兄弟인 雙童으로하야 說話가잇다『카스토아』와『폴룩쓰』는 友愛조흔 雙童으로서『쥬피터』의 아들 이니 항상 힘을어울러 人世의 災厄을 防止함으로 사람들은 그들을밧들어 社會의 守護神으로 노피엇섯다 그런데 『폴룩쓰』는 不死의 神이엇스나 『카스토아』는죽어야할 運命이라 이내『카스토아』가 죽어 永訣하게될때 폴룩쓰는『自己도가티죽어

冥府 에떨어가게 하여주오』하고 아버니인 쥬피터에게 졸랏더니 쥬피터도할수업시 그情에 끄을려兄弟가 一年中에 半은하늘나라에서 半은冥府에가서 지내도록하엿다는 눈물겨운 哀話로 되것이다 듧고도 어엽분 이별이 차고맑은 겨울밤 하늘에떠돌아다님을 볼때 사람들은어데서나 저절로 感傷的인說話를 맨들어내게 되비일것이다

×

西A『카스토아』요 東B폴룩쓰이니 카스토아가 잣칫작다 카스토아는 有名한 二重星이로되 百倍의 望遠鏡으로 보면 二等三等의 두별임이 또렷하고 이즘에 두별이 또 각각 두별식으로 되엇슴을알엇는데 매우 밥분

週期 로써 빙글빙글 돌고 잇다한다 폴룩쓰의 南西約 十度에 D별이 잇스니 지난 一九三〇年 三月에 冥王星이 發見된것으로 지금도 무론 그자리에 잇다한다 雙童座는 黃道第四位의 星座로서 一年中 太陽의 最高期인 夏至點은 實로 이星座中에 잇는것이다 東井의占星術上의 解說과 및 雙童이를 轉載한 호메로쓰의 詩歌는 白倍星課에서 이미 紹介하엿거니와『日月五星이 貫之는 爲中道라』는 그位置에 因하야 太陽系의 별들이 어대로 부나 케지나다니는 故이다 前漢元年 乙未十月에『五星이 聚于東井』함으로『高帝受命之符』라고하엿더니 明神宗戰年에는 薩爾滸山싸움에

天下 를 爭覇하려는 後金 奴爾哈赤 一派이 出師하는날에 五星이 東井에서 싸우고 白氣가『貫天三匝』하엿더니 劉綎이 擧兵戰歿하고 明朝의 天下도 이로써 돌려엎치게 되엇다고한다 紂가甲子로써 亡하고 周武王은甲子로써興하지 안햇느냐?고 잔뜩 援用하는 迷信打破의말이지만 어찌되엇든 奇巧한天時人事의 湊合이 잇서 까닭업시 人心의不安을 이르키는바이다 어찌햇든 東井이 물의淵藪으로 되엇스메 그附近에 水府 水位 北河 南河와積水四瀆等의 물의象의 별이름이 펴은바놓것이 中國의天文이다 이것들이 『오리온』과 『一角獸와 雙童諸座의 속에

分屬 되어잇다 아홉點이거니와 『오리온』의 中天에 오를때이면 거기서 東南아래편으로 시퍼런큰 별이 마치저녁샛별이듯이 엄청스러운 光芒을쏘으면서 二等星하나를 아떼놋코 올러오는것은 卽有名한『天狼星』이니 中國의 史書에 만히보이는 者요 大犬星座의 首星으로『시리우쓰』라고 일컷는바이며 그光度로서 全天恒星의 첫재이다 標準一等의 十三倍로 許久한 歲月에 조금도 줄아들지안는 景色이다 埃及의 古代에서도 이별이 새벽하늘에 나타날때이면 반드시『나일』河가 汎濫함으로 因하야 特히 宗敎的 儀禮를 尊崇하여섯다

×

나일河의 汎濫이 埃及文化의 物力的 機軸으로 되엇스니 그

汎濫 의 豫告者로서의天狼星을 崇敬한 埃及人의原始的인 拜星崇拜이 興味잇거니와 天狼의 光輝를 곳바로밧는 곳곳마다『별의殿堂』이 펴은만흔것을 지금에도 目擊하는터이다 그러나 埃及의사람들이 진작부터 一年 三百六十五日 四分의一이라는 日數를 알게되것도 이天狼인『시리우쓰』의 觀測에서 어든 것이라고한다 이天狼을 머리로하야 잔별과 三等星을 등성이삼어 銀河를좃처 내려가면 一等星인 세별이 直角三角으로된것은 舊『天弧』의 三大星이니 개의後體와 꼬리요 天狼의압별은『軍市』의首星이라 天狼 軍市 野鷄 天弧모든별의 主要部로서 大犬星座를 이루엇스되 머리들고 꼬리빼처『오리온』의 뒤를 따르는 꼴이

分明 히 눈에 뜨이나니사냥군의 발치에 쫏는『바둑이』이다 天狼의 氣勢가 이가름으로『狼이 爲野將이라 主侵掠하나니…角而變色하고 動搖하면 盜賊이 作하고 胡兵이 起ー라』고 한것이다 參宿의 左肩인『베텔규쓰』와 同一水準에서 東으로 멀즉이 떠나 叅動로서 번적이는 者는『푸로시온』이니 아레의 天狼星을 銳角으로『베텔규쓰』와 함께 三角形을 이루는者이다 이는『南河』座의 아레별로『비텔로니아』의 『강아지』座의首座이니 들의 崇拜를 받는者이오 그光度가 標準一等보담 약간크다 雙童이를 쫏처오는 바둑이의『강아지』로서 全說話中의 조그만재롱군이 이다

×

『시리우쓰』와『푸로시온』은近代의 詩人들에게 연방

詠頌 을밧는 그一雙이되여 理學的으로 『헬름』쓰』를 가진者이다 그이약이는 이러하다 十八九世紀에 걸처서 天文學은 한편에서『뉴ー톤』의 引力論이 展開되고 또한편에서는 觀測機械가 자못精密한 程度로 發達을 이루어서 天體運動에 關한 知識은 非常하게 豊富하고 精確한度를 加하얏섯다 그런데 여기에 問題가 잇섯스니 『시리우쓰』와『푸로시온』은 明細한 觀測이 進行되엇는데 약간의 흘림이지마는 그『數値』가 뚜들어맞지 안는것이 엇섯다 이問題에 먼저研究하기 始作한 『케니스베르히』大學의 『벳셀』敎授는 一八四四年에서『시리우쓰』와 『푸로시온』은 어느 것이나모다『보이지안는별』에依하야 攪亂되는것이라고 說明하얏섯다 여러 專門家가 이를 眞에 依한

捜査 에힘을 모아 과연 一八六二年 一月三十一日 『시리우쓰』의 附近에서 八等級의 微星을 차저내엇섯고 그後 三十四年동안의 엄새업는努力은 一八九六年에 와서『푸로시온』의 附近에서 다시 十三等級의 잔별을 차저내어 純理論上의 豫言이 實事로써 確證되고『베쎌』의 令名은 노퍼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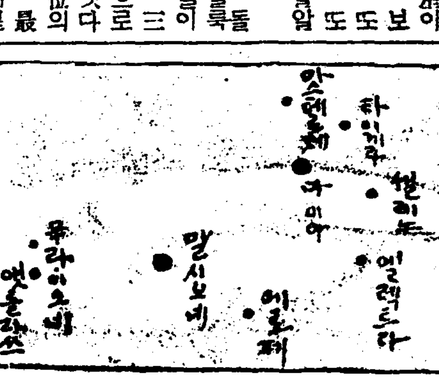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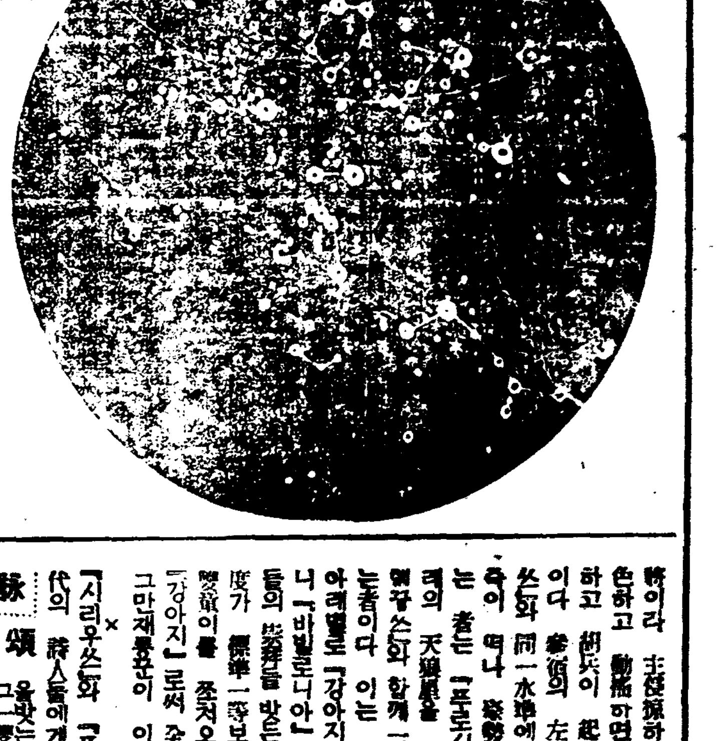
『오리온』의 발미창에 軍井 天厠의 모든별이잇서『토끼』座로 되엇스니 三四等의 여섯별이 主로되어 쨰 귀여운 별들이오『오리온』의 足部 西南하늘에서 舊『玉井』의 一部로 비롯하야 九游와 天苑의 大部와 天庾天厠과

火鳥 에까지미처 百三十度에서 南天에 잠긴者는 『에리단』개울이니 最南端의 『아케르나』는 有名한 一等星으로서『水委』라고 하는 者이오 朝鮮에서는 안보이는 南極方面의 큰 별이다『에리단』이 허풍선이 御馬家인『쾌ー톤』의 屍體를 집어처너흔 고장인것은 夏天景象에서 이약이한바이다 大犬의 東과南으로『아르꼬』船의 大星座가 잇스니 너무커서 向方을 잡을수 업슴으로 近代에와서 龍骨 배ㅅ머리、돗대、도羅針盤의다섯으로 區分하얏다 이배에타고『야보쓰포러쓰』를 건느는동안破船하야서 배ㅅ꼬리를일허슴으로 배ㅅ머리뿐이라 고한다『아르꼬』그는

全體 가거이다朝鮮에서아니보이는바인데 그 首星『카노푸쓰』는 古來로所謂南極老人星 으로서 朝鮮에서는 濟州漢拏山에가면 간신히 흘볼수잇는者이오 壽星으로서 專崇되는者이매 高麗와 李朝와 가튼때에는 조금낫설은 큰별만보아도 壽星이라고 허풍떠는 虛妄報가 잇서闕庭에서 醮祭하는법석이를 내엇든것이다 그位置는『폴룩쓰』와『시리우쓰』의 사이에 直線을 그어 同距離의 거의十二割의 點에까지 나려간곳에 잇는것이다

(以上冬天星象了)





學藝

聽川雜纂 (三)

新郞新婦分離論 ―『슈트루델하이머ー』의卓見―

金晋燮

세간의 空間的移動이 흔여 女子의 손에서 獨斷的으로 實行됨으로 依하야 結婚生活의 幸福이 破碎되는 例證은 上述한 바에서 充分하다 할수잇지만 特히 新婚夫婦間의 不和를 招來하고 比較的으로 더욱만히 그들의 悲劇을 料理하여주는 또하나의 다른源源으로서 우리는 여기 한張의

新聞 을 점잔히 읽지못하는 婦人의先天的 無能속에 指摘코저한다。그러다 實로 婦女子는 男子들가티 점잔케 안저 한張의新聞을 읽는才操아닌 才操를 갓지못하는것이다。即그들로말하면 그것을 이모에서저모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부비고 주물두고 구기적어리고 그리하야 그것을 조그만뭉치가되도록 접어노음이 업시는 新聞을 읽을수업는것이다。이리하야 그들이 新聞을읽고잇는形狀은 맛치 그新聞이가지고『산드윗치』를 싸라는듯한 或은 조히帽子를 맨드랴는듯한 김을 사람에게 이르킨다。이러한 事實의 精密한闡明에對하야서는 諸君은『슈트루ー델하이머ー』의 有名한 論文『新聞접이의 性的意義에 關하야』를 一讀함이조흘것이다。또한 여기잇서도설은 男便諸君은 新婦의 不美한 暴動에 向하야 盲目的措抗을敢爲할것이아니오 諸君의 아름다운 伴侶의 先天的弱點에 對하야 寬厚한 理解를 도한베가지도록 準備치안호면아니될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무어라하야도 우리들 現代人의結婚生活에잇서서 恒常 [illegible] 가지오고

威脅 을 감조고잇는 數만흔 危險中의 最大危險은 世上의 만흔男便이 거의죄다 理解치못하고잇고 理解치못함으로따라서容赦하랴하지안코잇는 저모든婦女子에게固有한根本的弱點속에 누어잇지는안는가한다。내가여기말하는根本的弱點이란 두말할것이업시 奇智의要點(Point)을 理解할수업는 女性一般의 저有名한生理的無能力을 意味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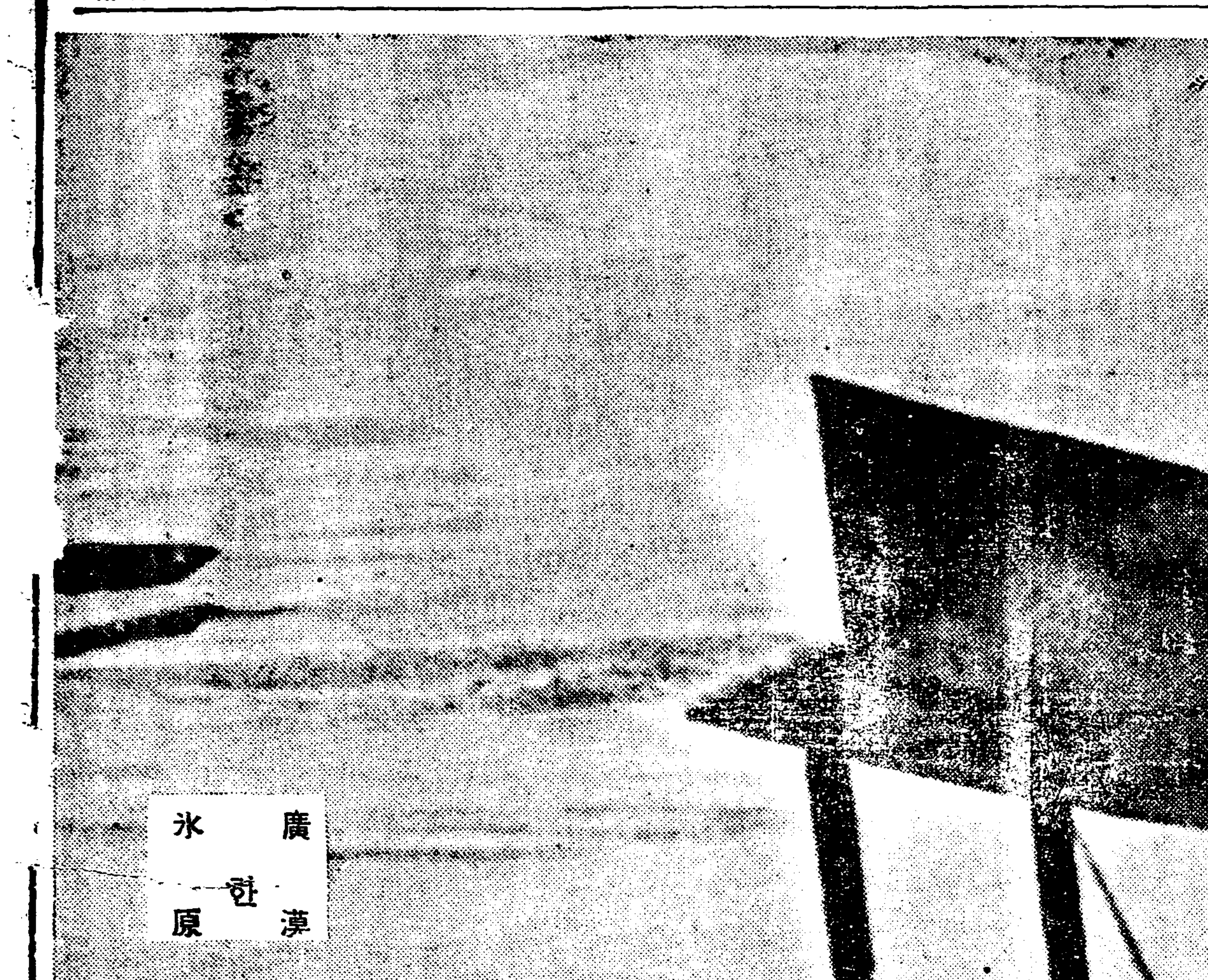
아、나는 얼마나頻數히 나의 商談時間에 憔悴한 顔色을한 나어린 男便의 闖入을 바라든가。그들은 마음을 찌르는듯한 語調로서 나에게 그들의 幸福한 關係가 그의 主婦때문에 破綻되것을 說明하는것이엇다。그리하야 나는 내가 그들에게 一一히 그理由를 무럿슬때 얼마나 여러번 다음과 가튼 同一한 內容의 話題에 接하엿슨지 알수업다。―모든 다른 方面에는 模範이 될만한 完全한 婦德의 所有者인 그의 愛妻가 數年來로 俱樂部에서 大成功을 博하여오는 그의 男便의

得意 의 才話를 듯고 잇슬때면 그 이약이가 全部 끗날때까지 心理學者의 이르는바『얼빠진 表情』을 가지고 그곳에 안저서 奇智의 結着에 이약이가 到達한때에는 眞心으로 哄笑하여야만될것을 도로혀 淡淡無味한 얼골로서 그래서 그것이 大體엇더케되엿스냐는둥、或은 若干짜증까지보태가지고『나는 조곰도 그것을 우숩다고는 생각할수 업서요。나는英國老人이 어듸까지든지 올타고 생각해요……』하고 主張한다는 것이다。그리하야 要컨대 이것이 무슨 다른 原因보다도第一로큰 家庭不和에 依한 離婚의 原因이되엿다는것을 그들은 力說하는것이엇다。

이런事實을根據로삼고 나는恒常다음과가튼忠告를 나의젊은結婚患者들에게 주엇다、─即 당신들이 당신의夫人들께 무슨 이약이를말해도길때에는 당신들은 그奇智가끗나기가무섭게 함부로高聲지서 놉히우서재치시요 이버락가튼哄笑를 젊은夫人들이 드르면 그분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表情 으로 조곰좀怪異하게 려지만 다음엔 올치으리다ー그러고 自己自身을 永遠히 分離식힌다는것이다、即 다시말하면 結婚하지안는다는것이다。

―完―



廣漢氷原

隨筆

斷章數三題 ⑤

蔡萬植

(5) 旅行餘談(下)

포켓속에서 짜증을 내는것을 모른체하고 호텔이란 註解가 부튼 一等旅館에 드럿다

溫泉에는 가는데마다 그 철철 너머넘치는 물이 앗가웁다―― 水道로해서 서울로 끌어오지는 못하나?하고 서울의 그不潔한 沐浴湯들을 생각한다

◇

열은 몸뚱이를 푹신 잠것다가 건저내니 미상불 지근지근 아프든 神經痛이 금시로 낫는 것도가트다

◇

마춤 음력 보름인가보다 다다미房머리에 洋式으로 해부친 베란다의 椅子에 푹신 거려안즈니 유리窓 너머로 달이 보인다

볏비치 흐미한 찬 한울에 동그란 달이 놉히 떠잇고 눈아래로는 훤하게 펴진 들판이 分明하게 달빗을 밧고잇슬뿐이다

이 單調한 風景이 어째해서 美意識을 불러내는지 알수업는일이다

달이 조아서 피곤한 몸을 뉘힐줄도 모르고 안젓느라니까 무엇인지 모롤 아쉽고 섭섭한 생각이든다

◇

마침 차를 가저온 下女더러 왜 獨湯을 두어두고 共同湯으로 案內햇느냐고 不平삼어 무러보앗다 다만 하로밤이니 獨湯에드러가 길게누어 모처럼 온 溫泉맛을 흠신맛보려든것인데 下女가 案內하는대로 따러간것이 共同湯이엇든것이다

『未安합니다 夫婦間에 오시는 손님이 家族用 獨湯을 차즈시지 혼자 오시는이는 大개 共同湯으로 가시길래 그만 큼바 그러케……未安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獨湯에……』

허허 올커니!

◇

미상불 病者가 病이나 療養하려가 아니면 혼자서 놀겸溫泉을 가는것가티 沒風致한것은 업스리라고 大悟를하엿다

◇

라디오가 악을 쓴다 그놈진절머리나게 여까지 쪼차와서이러케 수선을피울테라고는! 겨우 방이길혀 자리에 누우니까 이번에는 이웃방에서 醉한 사내가 실타고 뿌리치고가려는 게집을 붓잡고 求愛(?)를한다

◇

滿洲로 가는 친구가 病이나서 途中에내려 누어잇다는 기별도 바덧섯고…또 참새가 방아간을 거저 지내랴십허 도라오는 발분 거름을 平壤서 잠간 멈첫다。

◇

사람도 어느 진딈물(油虫)의 一種처럼저러한 경우에는 處女生殖을 할수잇다면 조켓다고 나는 허룰차며 도라누엇다

◇

업데면 코가다을 旅館까지의 停車場에서 自動車로 往復三四人씩 女關에 뛰여나와 절하며 마저드리는 迎接 風流式으로 꿈인 다순房 비단寢具 입안엣혀가리 시중드는 下女……이리하고난 하로밤만의 一流紳士나는 다시 오르르 떨면서 새벽 사람에〇〇行 輕便車에 올랏다

◇

그 可當치도 아니한 外道그것은 너무도 現實的壓力에 눌리어 悲慘하게 억개를 옥을트리고 서울거리를 다니는 내自身에 對한 내自身스사로의 한개 悲痛한 復讐인것이다

꼴 숭업게 우둘두툴 어려부튼 大同江이 아니본이만 못햇구나 後悔하게 보기가실타 엉성한 陵羅島에서는 나무꾼이 落葉만 긁고잇다。

사람자최 하나도 아니보이는 牧丹峰에서는 솔닙히 찬바람을 찟는 소리만 끈이지 아니한다 나도 이만저만찬케 승거운 風致客이로구나 苦笑를하고 발길을 돌렷다

◇

長城一面엔 어름이 어려부터 스켓트들을 지치고 大野東頭엔 납작한 草家들이 重爆擊機소리밋헤 움어린다

◇

平壤서 第一 조흔건 沐浴湯이 흔하고도 깨끗한것 女人네가 삽빡삽빡한것。第一 낫분것은 旅館하고 푸로페라 소리에 아층잡 자지못하는것。(끗)

海外短信

佛文壇의巨星 『포ー르·부ー르제』 巴里에서逝去

【巴里二十五日發聯合】佛蘭西文壇의巨星『포ー르·부ー르제』氏는 二十四日밤 巴里市內파르·드·쇼아街의私邸에서 逝去하섯다 享年八十三歲이엇다

『포ー르·부ー르제』氏 著作小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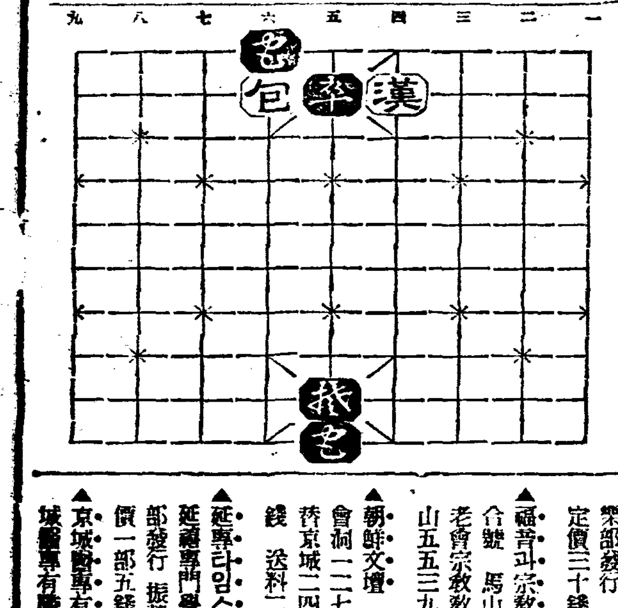
『포ー르·부ー르제』氏는 一八五二年에낫다。처음에는 詩를썻스나 다음에는 매우 尖銳한批評을썻스니『에세이』(一八八三)와『現代의 心理에關한 隨想錄集』(一八八五)가 그것이엿다。

그리고 그의 初期作品에잇서서의 한개의 一定한 原理라고 할만한것은『戀愛의罪』(一八八五)『앙드레·코르네리』(一八八七)『噓言』(一八八七)『弟子』(一八八九)『門徒』(一九〇一)等의 作品에서 볼수잇는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宗敎的、政治的 또는 社會的테ー마를 取扱한 小說과 戲曲을만히 發表하엿스니、이 一聯의作品은 매우 廣汎한것이엿고 또한 分明히 告白的이데가잇는것이다。

假令『宿營地』(一九〇二)『離婚』(一九〇四)『正午의惡魔』(一九一四)『死의感覺』(一九一五)等이그것이다。

博譜【2】



新刊紹介

▲朝鮮實業俱樂部 十二月號 京城府貫勳洞一一八 朝鮮實業俱樂部發行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福音과宗敎敎育 十二月、一月合號 馬山府上南洞七四 慶南老會宗敎敎育協會發行 振替釜山五五三九番 定價一年二十錢

▲朝鮮文壇 十二月號 京城府嘉會洞一二七朝鮮文壇社發行 振替京城一四五五八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延禧專門라임스 送年號 京城府外延禧專門學校內 三科聯合出版部發行 振替京城八七六六一番 定價一部五錢

▲京城齒專有鱗 第一〇五號 京城齒專有鱗會發行 振替京城二二二二 定價一部五錢

▲朝鮮興信報 第六二號 京城府旭町二丁目一〇 朝鮮興信所發行 定價一年六圓

▲朝鮮農會斡旋通報 第五十二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斡旋部發行 振替京城三〇二三番 定價一部六錢

▲前線 十二月號 京城府慶雲洞八八 天道敎靑年同盟本部發行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一部三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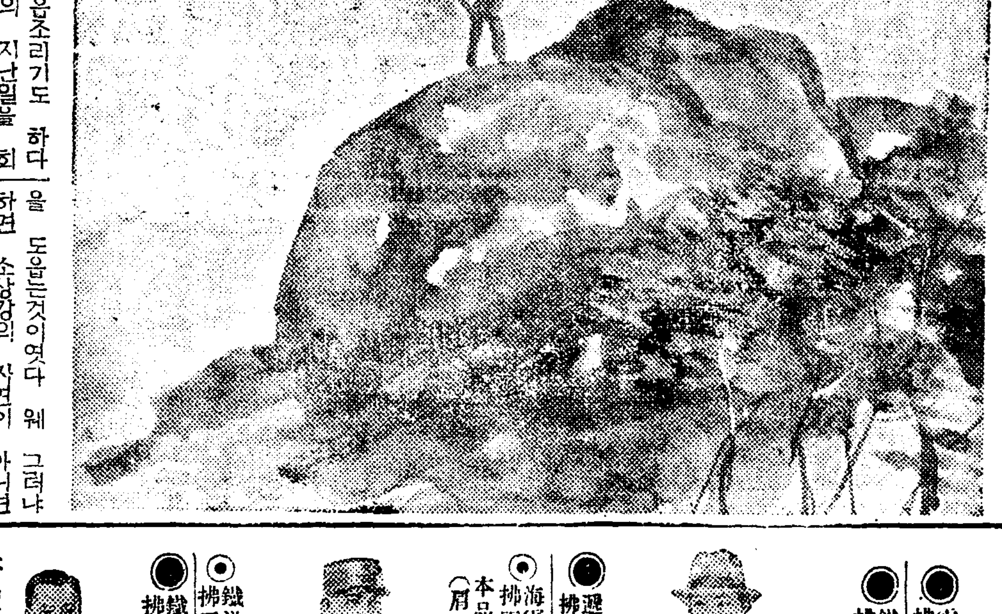
▲롱천검 第三十二號 京城府堅志洞八〇 롱천검社發行 定價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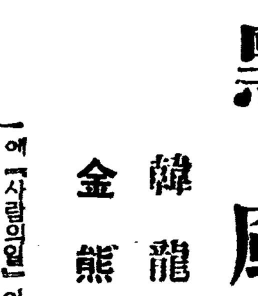
▲野談 新年號 丙子胡史話特輯號 京城府鐘路二丁目四五德元빌딩內 野談社發行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二十錢(新春特別附錄丙子年民曆 京城總販賣所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新又빌딩 振替京城二三〇四〇番

▲新兒童 新年特輯號 京城府仁寺洞七一 新兒童社發行 振替京城二三八五三番 定價十錢

▲時代像 新年號 京城府寬勳洞一二三〇 時代像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六七番 定價三十錢

▲호ー므라인 新年號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玉置合名會社發行 振替東京七二番 定價十錢





黑風【219】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참사랑 1

왕한은 비로소 도망해다니든 강호생활을『후!』하고 내쉬게되얏다 어느날밤에 왕한은 혼자 초추막에 가서 술을 받춰나되게 마시고 소상강 언덕으로나갓다 밝은달은 강물을 비치고 강물은 하늘을 비첫다 잇다금 뛰어오르는 고기들은 금을 치고 도라가는 기럭이 소리는 지평선의 어느곳으로 떠러지는지 알수가 업섯다 왕한은 정히 회포를 금할수가 업섯다。『강위에 어떤사람이 처음으로 달을 보앗스며 강달은 어느해에 처음으로 사람을 비첫는가』하는 옛사람의 시라든지『인생의 무상함을 슬퍼하고 장강의 무궁을 부러한다』는 옛사람의 글에『사람의일』이라는것은 이상도하고 복잡도하고、자미도잇고 우숩기도하고、그러나 귀경허망한것이엇다

왕한의 이러한 생각은 소상강의 자연 곳 맑은 물ㅅ결、밝은 달빗、물밋헤 잠겨잇는 고기、그위에 떠잇는 창공、기럭이 소리、뵈이면서도 다뵈이지 안는 지평선、그러한등의 아름다운 자연과는 조화되지 안는듯하얏다 그러나 자연과 인생은 하나이면서 둘이오 둘이면서 하나이어서 모순도 업고 조화도업는 동시에 또한 모순되지안는것이 업고 조화되지 안는것이 업는것이엇다 그리하야 왕한의 그러한 생각은 소상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모순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도로혀 그것

天井知らずの大賣行！

世間雜話　三十錢

野間清治著

滿天下諸名士より斯くも有難き熱讚！激賞！

全國會社、銀行、工場、學校
青年團、處女會より怒濤の如き大量注文！感謝！感謝！大感謝！何とも言ひ樣なし!!

——愈々以て御國の爲、渾身の御奉公をと社長首め社員一同大いに勵まし合つて居ります——

内大臣 伯爵 牧野伸顯先生

平生御多忙の貴社長が大小の社會問題に關し常に御注意相成候事誠に感服此事に候。

文部大臣 松田源治先生

余は文教の重責にあつて日夜其及ばざるを恐れてゐるが、特に教育の向上改善に就いていろいろ心を碎いてゐるこの時余と意圖を同うする野間君によつてこの『世間雜話』が著はされた事は余にとつても此上なき欣びであります。

樞密顧問官 子爵 石井菊次郎先生

野間君ノ著書ノ孰レヲ拜見シテモ手近ノ例證ヲ揭ゲテ人生要諦ヲ簡單ニ而モ徹底的ニ說明シ悉シテアル。蓋シ科學ハ別トシ人生ノ要義ハ之ヲ先哲ニ諮ルヲ要セズ之ヲ東西學說ニ徵スルニモ及バズ日常生活裡ニ自然ノ法則ヲ爲シテ流レテ居ルノデアラウ。

徳富猪一郎先生

始めから終りまで悉くみな野間社長の實踐躬行體得身驗の内より得來りたるものたることを認め、如何にも敬服に堪へなかつた。之は客觀的に云へば世間に對する教訓であり、主觀的に云へば野間社長の自傳、若しくは自傳の骨髓であるとも云はれないことはあるまい。卷末の『婦人よもやま話』は、正に現代の女大學と云ふべきものであらう。

臨濟宗建長寺派管長 菅原時保先生

實炬を暗衢に挑げ、甘露を旱草に洒ぐ、之是の古句を以て野間清治君の新著『世間雜話』を評す。卑近にして高深、人の語らんとして未だ語り得ざる所を能く語り、平易にして優越、人の說かんとして未だ說き得ざる所を能く說く、其親切一其溫情一紙上に躍然たり。

公爵 徳川圀順先生

評說丁寧比喩剴切讀去リ讀來リテ興味津々漸ニ處世之好指南萬人必讀ノ高著ト敬服仕候。

文藝家 菊池寛先生

苦勞人の日常道徳の實踐訓話である。前々の著書よりもいよいよ味が細かくなつてゐる。道徳の大綱に就ての本は多いがかういふ細かい注意の方が實生活にはすぐ應用出來るものだ。（中略）僕は現代日本の十大人物を選べば何の考慮なしに野間さんを書く。五大人物を選んでも同じかも知れない。

貴族院議員 稲畑勝太郎先生

全卷人生處世術の教訓で埋まれる此書は一讀後抛り棄てずに常に座右に置いて、何か迷ふ問題が起る毎に此の書を繙き、其の教訓を參考とするならば、大いに實益がある。

遞信大臣 望月圭介先生

此書は人生を愉快に世の人々を幸福にする爲に人として爲さねばならぬ手近な道が極めて平明卒直に書かれて居る。そして今の世に缺けて居るものは實はこの手近な道の實行である。私は野間君が繁忙の間から常に此方面に努力せられつゝあるを多とすると共に、此良書を廣く江湖に推奬せんとするものである。

日本女子大學教授 高良富子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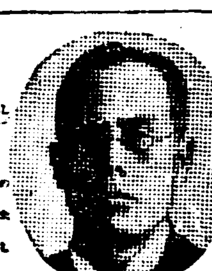
今度、野間さんの『世間雜話』を拜見して、これこそ、永い間私が希望して居た本である。いゝ本を出して下さつたものだと思ひました。私は『世間雜話』に依つて、日本人の生活のレールが敷かれたと信じます。そしてこのレールの上に、今後野間さんが、第二、第三の指導を與へられ、文化の向上に御盡力下さることを期待してやみません。

貴族院議員 丸山鶴吉先生

成人にも、子供にも、傭人にも、雇主にも、母にも子にも、夫にも妻にも、凡そ萬人に深い感銘を與へる、大きな力のある事を信じて疑ひませぬ。本書の出版は實に大なる教化事業の一つであると信ずる次第であります。

男爵 若槻禮次郎先生

本書ガ讀者ノ歡迎ヲ受クベキコト小生ノ疑ハザル所ニ有之候處國民ガ好ンデ本書ノ如キ著書ヲ讀ムニ至リタルコト其事ガ誠ニ結構ナル傾向トシテ小生ノ喜ブ所ニ御座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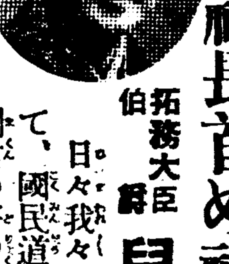


文學博士 下田次郎先生

讀書人が机の上で假想問題をいぢくつて出した教訓書の不徹底とおめでたさは一ケ所だつて、この書には見出されない。この書は野間氏の頭腦の熔鑛爐にかけて、雜物を選り分けて流し出した灼熱の鋼鐵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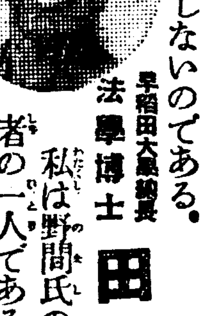
海軍大將 山屋他人先生

此書は風敎に益するところ頗る大なるものがあり、しかも社會の各階級を通じて德敎上最も普遍的なる尊重すべき名著である。敢て蕪辭を呈して深甚の敬意を表する次第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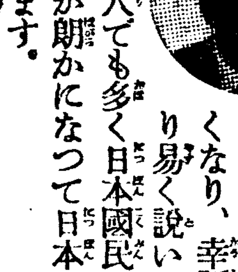
拓務大臣 伯爵 兒玉秀雄先生

日々我々の接觸する手近な諸問題に就て、國民道德の軌範を示されんとする野間君の努力は敬服に堪へない處である。此の努力の結晶が卽ち『世間雜話』であるので、今日の時世に於て、世道人心を正す上に有益なる羅針盤なりと賞讃するに躊躇しない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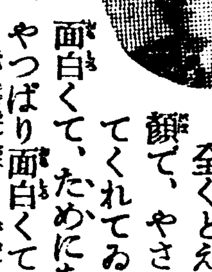
早稲田大學總長 法學博士 田中穗積先生

私は野間氏の著作の最も熱心なる愛讀者の一人である。曩きに昭和六年『修養雜話』と題せる著作の公刊された當時、一讀三歎直ちに數十部を知己の間に頒つて其精讀を促したが、近業『世間雜話』が又海に金玉の文字で、卷を措く遑なく一氣にこれを讀了した、其質實穩健の思想、洗錬暢達の文章、遉がに三十年間苦鬪の結晶と思はる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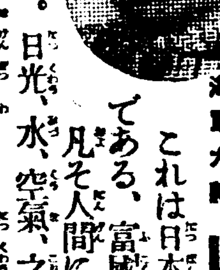
醫學博士 佐多芳久先生

世の中を美しくし、明るくし、人が偉くなり、幸福になる道を簡易に誰でも解り易く說いてあることに只々感服するばかり、一人でも多く日本國民が讀んだら其の人が幸福になり、一家が朗かになつて日本の繁榮、進歩に役立つことゝ深く考へます。



文藝家 中村武羅夫先生

全くどえらい人だ。その人が、ニコ〳〵顏で、やさしい、面白い話をして聞かせてくれてゐる。小僧さんや、女中さんが讀んでも、面白くて、ためになるし、大臣や大將や、博士が讀んでも、やつぱり面白くて、ためになる。これこそ、老若男女、貴賤貧富を問はず、萬人が萬人のために『人生の寶玉』を、ザク〳〵と秘めてゐる貴い『人間の書』であると言つていゝ。



軍事參議官 海軍大將 山本英輔先生

これは日本人の書である。國防の書物である、富國强兵の本である。凡そ人間に必要缺くべからざる大切なもの程廉い。日光、水、空氣、之程大切で之程廉いものはあるまい。『世間雜話』は日光であり水であり空氣であると思ふ。

又々大量大增刷

大正大學教授 友松圓諦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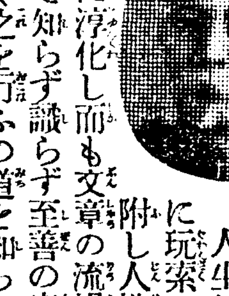
『雜話』とはいひ乍ら、みんな生活の活きた指針であり、萬人必讀の大文字である。野間さんに佛典を讀みなほして貰つたら、さぞ立派なものとして現代に再生するだらう。

共立女子專門學校長 鳩山春子先生

『世間雜話』とは申せ、立派な『世間哲學』で、讀者が之によつて、如何に多くを訓へられ、救はれるであらうか、私は本書の普及に大なる望みを懸けてゐるもので御座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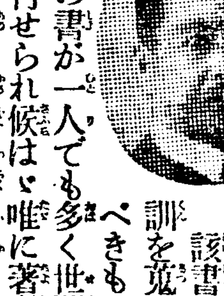
前大審院長 法學博士 横田秀雄先生

『世間雜話』中に於て、平易なる文字を以て氏獨特の處世訓の妙味を遺憾なく發揮せられましたるは、誠に喜ばしい事でありまして私は、其の世道人心に感化を及ぼすことの極めて大なるべきを信じ大に此著を推奬したいと思ふのであ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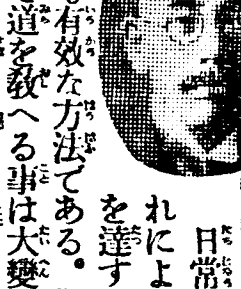
陸軍中將 大島健一先生

人生日常接觸する事象を捕へ來て仔細に玩索し愼密に思辨し之を彝倫の洗練に附し人性の本能に愬へて懇誠に詳釋し明朗に淳化し而も文章の流暢にして解詁の心切なる讀む者をして知らず識らず至善の寰宇に逍遙し道義の體用を了悟し篤く之を行ふの道を知らし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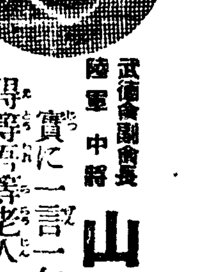
日本勸業銀行總裁 馬場鍈一先生

該書は誠に平易に說述せられたる處世訓を蒐められたる社會教科書とでも申すべきものにて近來になき快著と信じ申候此の書が一人でも多く世間の人に讀んで貰ひ且其の通りに實行せられ候はゞ唯に著者の御滿足は申すに及ばず世間一般の者の幸福和樂如何ばかり大きからんかと愚考仕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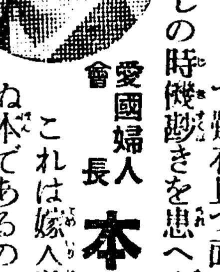
拓殖大學々長 帝國教育會長 永田秀次郎先生

日常の極く些細な事柄に注意して、これによつて極く些細な事から大きな目的を達するやうに導かれてゐるが、これは最も有效な方法である。斯ういふ平凡な些細な事柄を活かして道を敎へる事は大變に容易な事のやうに思はれるが、實際は極めて難かしい事で、苦勞を仕拔いた人でなくては出來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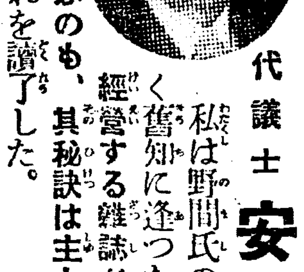
武德會副會長 陸軍中將 山本鶴一先生

實に一言一句人々の陷り易き過誤、心得等吾等老人には一々胸に覺えある事とて難有且つ面白く存じ申候。只老の近づき今更取返しの時機遲きを患へ申候。呵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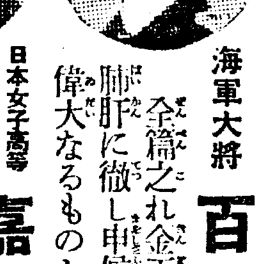
愛國婦人會長 本野久子先生

これは嫁入道具の一つとして忘れられぬ本であるのは勿論ですが、女學校や女子青年會や處女會あたりで花嫁讀本として採用したら、どれほど日本の若い娘さん達の將來が明るく幸福になるかしれないと思つて居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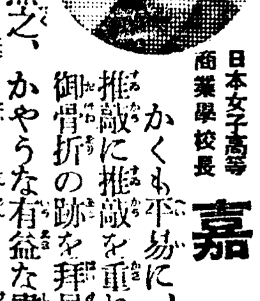
代議士 安部磯雄先生

私は野間氏の『世間雜話』を讀んで全く舊知に逢つたやうに感じた。野間氏の經營する雜誌が何れも多數の讀者を有してゐるといふのも、其秘訣は主として此點にあるのだ、私は一氣にこれを讀了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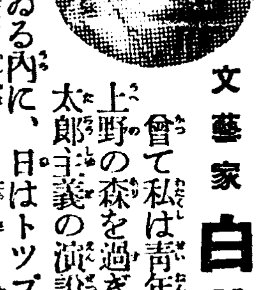
海軍大將 百武三郎先生

全篇之れ金玉の聲とも可申か言々句々肺肝に徹し申候誠に實踐躬行の感化力は偉大なるものと敬服之至に奉存候。



日本女子高等商業學校長 嘉悦孝先生

かくも平易に、讀み易く、わかり易く、推敲に推敲を重ねられた著者の御苦心、御骨折の跡を拜見いたしまして唯々驚嘆するのほか無之、かやうな有益な書物を讀ませていたゞく事が出來ました事に對し深甚なる敬意を表する次第で御座います。



文藝家 白井喬二先生

曾て私は青年時代、圖書館の歸途に、上野の森を過ぎ、冷たき石上に立つて桃太郎主義の演說をしてゐる一老人を見懸けた。聞いてゐる内に、日はトツプリと暮れ、眞暗の中に聲のみ傳はり私は感激して立去り兼ねた。『世間雜話』はそれに幾千倍した力を以て、全日本に呼びかける石上の演說であらう。街頭に孔子が現はれたのだ。

順不同
（拔萃揭載）

此の外諸名士よりの御批評机上に山積！ 茲に揭げ洩れの御批評は何等かの方法を以て順次發表させて頂きます

面白い〳〵トテモ面白くて爲になる
早ければ早い程得、即刻書店でお求めあれ

米國金洪水出現 ② 保有百億九百萬弗

金保有高의 激增 이에 依하야 派生하는 過剩準備 及 信用큰 三者의 問題는 政府의 弗貨政策과 非常히 密接한 關聯을 가지엇다

×

먼저 金流入의 增加부터 말하면 弗平價切下 即 金의公定價格이 二十弗六十七仙에서 三十五弗로 引上된結果 保有金의 評價額이 一擧二十八億弗의 增加를 示한것은 새삼스러히 말할것도업스나 이것이 또 그後의 約三十億弗의 金流入을 刺戟한 큰原因이 되엇다 大體弗減價의 結果 米國物價의 奔騰이 豫想되고 이好景氣에 均霑하려하는 海外로 부터의 資本流入이 依然增加한것이 그하나요 이目的으로 또는金融의不安으로 弗貨에對한 需要가 顯著히 增加하고 이結果外貨가 下落하야 結局 金은 米國에 金流出을 하지안흘수 업게되것이 또하나 此等의金이 드려온結果 이를바든 諸銀行은 모다 그것을 財務省에 파려 그代金을 準備銀行의 準備計算에 預入한것이다 그러나 이를 貸付할 길도업시 그대로 이準備는 부질업시 過剩되어 堆積하야 平價切下當時 八億弗가량이든것이 現在에는 三十億弗을 超過하얏다 이結果 金利는 거이 零化의 傾向을 것고잇슴은 贅言할 必要도 업다

×

이러한情勢는 노-멀、健全한 것과는 因緣이 멀다 過度한 低金利가 인플레의 培養素가 되엇슴은 經驗이 이를 말하는바이다 果然인플레가 發現할런지 或은 그 時期等에對하야서는 豫斷할수업스나 그 可能性이잇슴은 拒否할수업다 現在 通貨의 狀態는 過去 二個年에 잇서서 一九二八—二九年度의 株式熱時代의 二倍에 達하얏다고 現在와가티 商工業者에 前途의 確信이업서 敢히 資金의 貸出을求치안는 時代이면 如何間 一旦 擴張資金을 賤히 借入하게되어 好景氣의 樂觀人氣가 爆發하게되면 그發展의 程度는 豫測할수업슬것이다

×

勿論信用의膨脹을 抑制할 方策이 한나에 그치지안코 나 政府는 政府가 그權限을 갓고잇는가 엇더한가가 아니고 政府가 잘이 인플레의 發現을 防止하고잇는가 엇던가 法律的權限을 發動하여 抑制策을 發動할는지 엇더한지 好景氣에 뿌려키-를 당긴다는條件이 人氣가 조치못한 일을 敢行할수잇는 勇氣가 잇는지 엇던지이다

다음에 이 勇氣가잇다하드래도 政府豫算이 均衡하거나 或은 均衡하다고 보이기까지는 準備局으로서는 인플레抑制에 極히 困難한 立場에 서게될을 留意하지안흘면 안될것이다 政府가 작구 膨脹政策을 取하는 限 準備局으로서도 極히 일을하기어려울것이다 왜그러냐하면 現在 政府公債가 高價를 呼하고잇는 것은 金利가 싸기때문으로 萬若 準備局이 金利引上을 强化하는 政策을 取하게되면 政府公債의 賣物이 殺到할것이며 이結果政府의 資金調達은 困難하여저 政府公債를 巨額으로 擔保하고잇는銀行은 큰 打擊을 蒙하게될것이다

×

이를 要컨대 信用의 統制는 豫算의 均衡이 絕對不可缺한 條件으로 豫算만 均衡을 어드면 準備當局은 財務省에 封財될이업시 그 統制權을 쓰리라고 생각된다 最近 準備가 放漫貸出에 뿌려키를 당길뜻이피고 잇는것과 大統領이 赤字漸減의 放送을하는等의點으로보아 政府側도 充分히 이點을 알고잇다고생각되나 元體問題는 크고 또 멀리 케잇는함으로 그 推移는 注目하야도 조흘것이다 (終)

朝鮮棉花共販 九千萬斤豫想

前年보다五割五分의增加로 大體今年으로終了

今年의棉花共販出廻는 十一月末에 前年五千四百萬斤出廻量 凌駕하는 七千二百萬斤에 達하엿든바 繼續하야 共販棉은 增加하야 十二月二十日現在에는 八千萬斤을 이미突破 年內九千萬斤의出廻을 確實케되고 共販棉은 前年比較八割五分의 激增을 豫想한다 一面共販開始以來의 棉花價格을보면 共販基準價로 九月中旬의 第一回五十八圓二十一錢을 最低로 十月에는 六十圓台 十一月末서六十二圓臺로十一月에는 六十二圓에서 最高六十七圓○四錢을 示하고 六十五圓台를 維持하엿스며 十二月에는 六十四、五圓에서 六十、六十一、二圓의 保勢로 前年과는 三、四圓乃至、五六圓低이나 高價維持하엿다 共販은 各地도 大體年內로써 끗내이고 明年度에 全南、黃海、慶南의各 主要産地만 繼續할 豫定이라고 한다

本銀行의 特融繼續期限은 昭和十二年五月로되엇는바 大藏省에서는 特融에 對하야는 一般的으로 그期限을 延長하라고 議會에 右延期案을 提出할意向임으로 被融資銀行에 對하야도 右에伴하는償債案의 提出을 求한때문에 漢城銀行으로서도 案을 樹立하야 그內容에對하야는 말할수업스나 그內容에對하야는 說明한것이다 結局 特融期銀行으로서는 낫브게안될것이다

春期農改低資 千九百萬圓

◇道別配定도決定

明年度 春期農事改良低利資金融通配定은 肥料資金을 비롯하야 各道의要求額이 膨脹하고 農林局에서는 殖銀東拓과 協議中이더니 春期農事改良低資로 合計一千九百七十八萬 五千圓을 融通키로 決定하엿다 이것은 前年度融通額의 一千百餘萬圓에比較하면 八百七十三萬三千圓의大膨脹이며 低資不足額은 殖銀、東拓의 自己資金으로 貸出키로 되엇는데 資金別은 다음과갓다

	新年度	前年分
肥料資金	一九、一三〇	一〇、五三二
肥料外	五五	五〇四
合計	一九、七八五	一一、〇三六

그리고 各道別의配定額는 다음과갓다(單位千圓)

京畿	二、五〇二
忠北	九一〇
忠南	一、五六〇
全北	三、二九六
全南	二、三九七
慶北	一、五三二
慶南	一、五一〇
黃海	二、四〇六
平南	一、一七七
平北	一、九三三
江原	五五一
咸南	九四〇
咸北	六五
合計	一九、七八五

銀行別은殖銀九百三十六萬八千圓 東拓一千四十一萬七千圓으로 東拓에는 自己借受二百十八萬圓이 包含되어잇다고 한다

朝鮮産業 懇談會

明春初開催豫定

總督府에서는 明年度에 産業調査會를 新設하고 産業統制問題에對하야 二年間에亘하야 調査硏究키로 되엇는데 殖産局에서는 이에압서 明春一月十一日頃에 朝鮮産業懇談會를 開키로되엇다 이懇談會에는 民間當業者實業家와 總督府와 各道關係者三十餘名이 參加하야 二日間隔意업는 意見交換을 行할터인데 大體 그中心論題는

一、重要産業統制法의 朝鮮施行問題

二、朝鮮雜工業의 日本內地調整問題

三、朝鮮內獨自工業統制問題等 三問題에對하야 朝鮮으로서의態度를 協議決定하고저 하며 特히 重要産業統制法이 今議會에 上程될形勢임으로 이에對한 朝鮮側의 綜合的對策으로서의準備工作이라한다

漢銀特融延長

議會立案提出

堤漢銀專務는 渡東中이든바 二十六日 午後三時二十分歸京하엿는데 特融問題에 對하야다 음과가티 말한다

繭生産費低廉非難

農家實情無視라고

昨報한바와 가티 農林局蠶業係에서 調査發表한 特繭一貫當平均生産費는 一圓九十三錢으로 今年春繭價 四圓九十一錢 夏秋繭 三圓四十四錢가량으로 보면 差引春繭은 二圓九十八錢 夏秋繭은 一圓五十二錢의 純益이잇는셈이다 그런데 果然 一貫當生産費 一圓九十三錢이라는 數字가 正確한것이냐고함이 疑問을 갓게하는點이다 即 一人當飼育枚數를 二枚(約二匁)로치고 勞賃을二十五錢으로 計算하야도 實當勞賃이 一圓餘에達하며 남어지 九十錢으로 到底히 桑葉代가 될수업다 이와가티 生産費를 一圓九十三錢 이라고 한것은 도리어 産繭獎勵에잇서 正當한 標準을 定할수 업슬뿐만 아니라 繭取引에잇서 惡影響을 念慮가 잇다고하야 一般은注目하는터이라고한다

財界의前途

今年은好況이繼續 明年도大體順調?

【東京電話聯合】今年의日本財界는 (一)一般物價 特히絲價、米價等農産物價의昂騰 (二)株價高 (三)豫想以上의貿易好調 (四)軍需景氣의依然持續 (五)米穀景氣의 顯著한 回復等으로 初秋以來 活況을 加하고 好調裡에 過歲케 되엇는데 明年의 財界에 關하야 金融界 其他의 觀測을 드르면 다음과 갓다 日本産業界가 오늘과 가티 好轉한것은 爲替市場의 低落으로 因한 輸出의 增進、輸入代用品으로서의 日本內地産業의 勃興、三個年에 亘한 軍需景氣의 持續等 全然 時局의 影響으로 因한 點이 多大하다고하야 그 根底는 昭和四、五、六、七年에 亘한 不況時代에 培養되엇다 即 多種産業에 亘하야 技術의 進步經營合理化、賃銀의 切下等生産費의 切下로 不況時代에도 堪當하라는 努力이 積在케되엇슴으로 充分한 根底가 잇고 또 財界도 매우 堅實한 基調에 立脚하고잇슴으로 根本에 잇서 前途를 不安視하는 點이 업다 特히 世界的으로보면 不景氣는 大體底入된感이잇고 國內的으로는 農村의 危機도 버서난모양이다 또 赤字公債가 繼續하면 健全한 産業資金의 供給은 依然圓滑케 되야 低金利의 持續은 無疑하고 物價昂騰도 그上昇率이 顯著치안흘만큼 貿易의 前途도 悲觀할것이 아니다 十一年度豫算이 말하는것과가티 軍需景氣는 明年도 變化가 업슬것이요 財界는 政治其他 突發的事件이 안생기면 明年도 亦是大體順調의 推移를 보게될것이라고한다

氷合同成立

資本百萬圓新會社

오래동안 懸案中인京城內氷合同은(天然人造가 모두十二業者)은 關係方面에서 最近 다시協議中이더니 이번에는 從來參加를躊躇하든 京城水産도 合同에 參加하야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府民館에서 各代表者會議를 한結果 合同이成立되야 目下七名의創立委員으로 新合同會社創立의準備에 着手한바 新會社는아마 資本金百萬圓으로될 모양임으로 來年初創立總會를 열게될모양이라고한다

小包郵便引受總數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最近 六個月間의 小包郵便物의引受總數는 百十六萬六千六百九十五個로 配達總數는 百七十五萬七千九百十一個인데 前年同期取扱數에 比하야 引受는 四分、配達은 五分의 各增加이엇다고

南浦米增保險

每石五圓徵收

鎭南浦港의 朝鮮米運賃流保水險增價은 船主荷가 協議한結果 每百石에五圓식 一月一日로부터 三月十五日까지의 七十五日間 徵收키로 決定하엿다고한다

三陟의鑛業權

總督府에서認可

問題의 三陟開發은 新鮮無에서 三陟鑛區에 對한 鑛業權 設定申請을 提出中이더니 總督府에서는旣定方針에 基하야 總督府의 先願權을 解除하고 二十四日附로써正式으로 新鮮無에 對하야鑛業權을認可키로 되엿는데 이것은 三陟關係 六地區의全石炭鑛區에 亘한것이다 이에 基하야 六個月以內에 事業計劃書의 提出이 될豫定으로 三陟開發에도 明年夏期에는 待望의 具體化키로 되엿다고한다

市中金價低落

京城市中金價는 二十七日에 賣一匁十一圓七十五錢으로 不變이나 買는一匁十一圓六十錢으로 五十錢低이엇다

日加通商回復

明一年月부터

【東京電話聯合】對加奈陀貿易是正에關한 關稅調查會는 廿六日 午後二時 中央會議所에서열고 加奈陀에對한 報復關稅의撤廢에對하야 審議하고 同日 그結果를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昭和十年勅令第二百八號에依한輸入稅의 增課相對國인加奈陀에 依한 省告示第百六十二號及大藏省告示第二百八號에關한件 昭和十年勅令第二百八號等에關한件 그뒤 日本政府에對한 從來의措置를是正할目를 具體的提議가 잇섯슴으로 相對國의 是正措置實行과 同時에 日本에서도이것을 廢止키로 되엇다 그結果에基하야 日加兩國間에新通商協定이 締結케 될것으로 이實施는 明年一月一日로 될모양이라고한다

【東京電話聯合】年末金融市場은 政府資金의 大量撒布에도 不拘하고 一般決濟資金의 需要增加로 繁忙을 呈하야 「콜」日步는 一錢二厘가량으로 昂騰치안흘가 豫想되든데 最近 市中側의樂觀豫想으로 年末資金이 秋收期에 빨리 나와서 或은 最初의 豫想과 反對로 意外平穩히 推移치안흘가 觀測되는 傾向이 有力케되엇다 即 이觀測을 裏書할것으로는 月初 來年越物의日步는 昨年의 八厘五毛에 對하야 九厘五毛로 高價取引되엇스나 最近에는 年末樂觀으로 低落傾向을 示하야 八厘五毛乃至九厘로 取引되는狀態이며 二十四日의 週末市價도 翌日物取引의中心은 七厘五毛唱으로 昨年同期에比하야 小幅 가엇다 勿論 年末最終의 地方에 따라서 市場或은 急降下할 것도 豫想할수잇스나 現在를 基礎로 觀測하면 그大勢에는 變化가 업슬것이라고 市場一般은 豫想한다

▲煙草製造豫定數量 專賣局의明年一月中 煙草製造豫定數量은 日付一億八千八百七十萬本 兩切四十三億一千八百九十五萬本 細刻二千二十五瓩 荒刻百五十五萬七千六百四十五瓩이라고한다

今月中旬荷動

鐵道局線의 十二月中旬荷動은 一二三八、一七八噸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一三、七五四噸의增加를 示하엿다

經濟界消息

◎三井物産京城支店出張所主任會議= 二十七日 午後一時부터 同支店에서는 管內各出張所長會議를열고 三井一手를 取扱키로되엇는데 日本製粉仁川工場의製品販賣 其他에對하야 協議할터이라고

◎朝鮮交通連絡協議=鴨綠江水路開發其他 朝鮮滿洲交通通信連絡에關한 總督府側 態度를協議키爲하야 廿六日 午前十時半부터 第二會議室에서 外事課、警務、內務、鐵道、遞信各局關係官이 出席하야 過般現地視察과 滿洲國側과 協議하고 歸任한 御用掛 村田中佐로부터 報告가잇고 이에對하야 協議하엿다고

朝鮮信託總會

專務讓井氏選任

朝鮮信託會社에서는 廿七日午前十時부터 定期總會를 열고 取締役會長、議長司會알에 議案을 審議하고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一、第六期諸決算承認의件(可決)

二、第六期利益金處分에 關한件(年六分可決)

三、取締役六名任期滿了 取締役一名退任에對한 選任의件은 許議長의 詮衡한 結果 韓、谷、朴榮喆、閔大植、張稷相의五氏가 重任하고 새로히 讓井源一氏、三木淸一氏가 取締役으로 選任

四、會社를 代表할 取締役選定의件은 谷多喜磨氏로 決定

五、監査役一名選任의 件은 金漢奎氏가 새로히 取締役으로부터 選任決定

六、定款變更의件(可決)

七、退任取締役色部貢氏에게 慰勞金贈呈의件은 取締役會一任으로決定

同十時三十分에 散會하엿는데總會後 곳重役會를 열은結果 專務取締役 讓井源一氏 取締役支配人 三木淸一氏로 決定하엿다

明年初市勢豫想

初立會 (一月四日)

朝取期米 三月限錢會價(前場寄價)
朝新株 朝取短期前場寄價
東新株 同上
(以上豫想은左記項目으로募集)

賞品
一等 十圓 三名
二等 五圓 六名
三等 朝鮮日報一個月購讀券十二名

適中者多數인때는抽籤으로 定하고 만약適中者가업는때는 最近價로서順次로定함
▲終了=明年一月二日本社着에限함
▲發表=明年一月八日
▲注意=住所姓名을明記하야『朝鮮日報經濟部』로 보내고用紙는葉書로一人一張一題에限함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懸賞米募集

今日財界 (廿七日)

◆米 仁川期米 先限 大阪期米 先限 ◎三等米 一石 正租(仁川) 一斤 上 下 ◆市中金銀價 一匁賣 十一圓七十五錢 一匁買 十一圓六十錢

◆株 朝新 東新 日産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砂糖 ゴム現

株式 商況 (廿七日)

意外平穩裡에 凡調로大納會

伊에戰爭을 直接動機로 九月中旬暴落에서 常軌에서 벗어난 大幅活躍을 示고나서 十一月十八日朝來 東新百七十圓臺를 頑强히 保持하야오다가 年末掉尾大爆發을 期待하얏섯스나 十二月二十四日 玉整理로 東新百七十圓割 二十六日의 百六十六圓臺에까지떠러저 十一月高價에서 비롯오 十圓押을 示現코 今前場大納會는 平凡裡波瀾업시 無市勢로 告終이엇다

前場保合 大納會인今前場은 東新百六十八圓臺、大新九十四圓臺、日產七十二圓臺、朝新三十圓臺에서 細刻保合이엿고 鐘新만 百五十六圓으로 比前日後引二圓高이엇을뿐이다

短期大納會價 —第一部—

朝取	七三、〇〇
朝新	三〇、七〇
鐘新	一五六、〇〇
大新	九四、〇〇
東新	一六八、四〇
日産	七二、〇〇
帝人	一一六、〇〇
日魯新	五七、七〇

大納會式

朝取證券市場에서는 二十七日 午前十一時 三十五分부터 大納會式을 擧行한바 먼저 荒井朝取理事長의 인사가 잇고 白井證券部取引員組合長의 答辭가 잇슨後 拍手裡 閉式하엿다

新春은果如何

亦是平凡할가

東新이 十一月高價에서 畢竟十圓押을 示現코 玉整理를 하고나서 凡調裡越年케되엇바 新春初立會는 果然어떠할가? 크게말하면 年內無市勢가 適中한셈이오 적게말하면 玉整理低이엇겟는데 買玉을 越年치못할者는 投賣하엿으로 남어지買玉은 新春高를 期하는것으로 볼수박게업는데 이번 下落으로 整理가 남어잇던 東新의 最後的 處分이었는지는 斷言할수업스나 材料로서보면 政界의 風雲이 告急하야 議會는 休會를 지난後 劈頭에 解散될形勢이며 딸어서 豫算不成立이 될것인즉 中國의 對日關係險惡과 相俟하야 新春은 春高人氣에 背馳되어 不勢가아닐가?하는 念慮도업지 안타 그러나 議會解散이 速하면 速할수록 特別議會가 召集되도록 되어 豫算關係는 別로 걱정할것이 아니라 新春의 目이 好買場이되리라는 見方도잇다

材料多邊多角

波瀾萬丈豫想

新春株式界는 多邊多角的일것가트니 伊에戰爭、軍縮交涉、對中問題、議會解散、米國景氣、預金利下問題、人絹、綿絲의增産過剩、財界基調는 低金利物價高에 無變化임으로 雜株類는 探算的으로 下値가 阻止되는 同時에 東新도 雜株와의 對照上 高價를 維持하고 이高價우에 多邊多角의變化가 演出될것으로서 新春은波瀾萬丈이 豫想되는터이다

實物株前場取引

△金剛電鐵三九五△證券金融一四四△朝鮮製鍊一〇〇△朝鮮石油三三〇△鮮水捷新一四五△鮮滿開拓五九△米倉新一一〇△京南鐵道三三〇△山工作所三三〇△北鮮製紙一五五△

市場六感

株 大納會는 畢竟無市勢로 告終 ▲最後五分間式으로 今二十七日 前場 後場에 爆發되리라는 期待도 업지도 안엇는데 文字그대로의 平凡 ▲掉尾一振으로 反對로 東新百七十圓割의 整理低인채 越年할뿐 ▲新春與豫想도 그러하는 만큼 ▲그러나 이市勢는 玉整理로 當然진작 下押되어야할것이 腕力的으로 買支하야던 때문에 整理가 느저젓던것으로 年內에 미리 整理低가 잇섯음은 當然한일이오 이로써 新春期待를 全然拋棄하고 悲觀할도 一考를 要할것이아닐까? ▲一年間이 闕適하야 諸位에게 未安을만히 끼치엇슴을 謝하면서 無事過歲를 빌고 新春成功을 心祝 ▲年例에 依하야 本社는 初市勢를 懸賞募集하는 바 應募가 만키를 바라며 누가 適中하야 新春에 賞金을 밧게될지? 幸運을 놋치지말나 付託코擱筆

二、軍縮問題는 交涉이 잘될까닭이 업는것으로 그結着이 明白히되어 非常時에 對한人氣가 强할것이되든지 歸一케될것이다

三、中國問題는 別로큰影響이 업게다

四、議會問題는 强弱은 어떠로든지 材料로서 相當한 作用을할것이다

以上外에 市場關係에 잇서는 年末에 取組整理가 强制되어 內容이 一新하고 新取組時代에 入한點으로보아 그變動이 新春은 消極性을 脫하야 積極味를 帶할것이다

朝取短期取引モ力株高低表

初立會價 大納會價 年中高價 年中低價

	初立會價	大納會價	年中高價	年中低價
朝新	三〇、一〇	三〇、七〇	三〇、七〇(十一月)	二五、五〇(六月)
大新	八六、一〇	九四、〇〇	一〇〇、〇〇(十一月)	七七、二〇(七月)
東新	一三八、五〇	一六八、四〇	一七五、六〇(十一月)	一三八、五〇(六月)
日産	一〇〇、四〇	七二、〇〇	一〇八、〇〇(三月)	六五、五〇(七月)

東京國債大納會

【東京電話聯合】國債大納會는 年末의金融緩漫豫想으로 今朝의 大納會市場은 五分利十一買히 活氣를帶하야 五分利十錢의 躍進을 비롯하야 米貨六分半은 十五錢、五分半四十五錢의各 高를 나타내고 高低區區하고 大納會이엇다

堂島情報

【大阪電話】本日買上의 申込은 九州四國方面의 硬質地方은적고 北海道東北山陰等 軟質地方의 申込은 相當히 만흔 模樣이며 日本內地米過多氣味의 東京方面은 大阪보다도 三〇錢乃至五〇錢低로 申込한 模樣이다 大納會後의 暗氣配는 東京小强、環境區區이나마 産地頑强으로 底堅하다

◇東京期米前場 ▲賣方=梅原、山種、正米側、川口、來客側 ▲買方=馬越、朝鮮側、山文、地場强氣株式側別派

各地正米

京城不勢 年末關係로 新規取引皆無이오 氣配十錢低인 丸三等二十八圓五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二十一錢 一等白米二十一圓

仁川軟調 月末準備一巡으로 로거의傍觀이오 場面極度閑散으로 氣配十錢低인 丸仁三等二十八圓五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二十五錢

釜山小弱 市場貨物 七千叺 繼續하야 換金處分賣物이 旺盛하고 氣配十錢引緩에 五千五百餘叺의 商談이 成立되어 角フ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

大邱引緩 年初期待로 變方

群山保合 年末關係로 依然沈默이 오 賣行不振으로 氣配十錢引의 丸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木浦不動 產地出廻는 거의 賣方이 越年待로 商狀은 依然閑散하고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商品 (廿七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單位錢)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金融 (廿七日)

◆海外經濟 ◆京城手形交換高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塊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 ◆京城雜穀 ◆仁川大豆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치카고期麥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鰮搾粕冲價 ◆豆油冲價

朝取取引員 株式 玉 期米 柳來恒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 營業內容進呈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長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金・白・銀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番地(小廣橋際) 電話本局三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壹四番 金銀賣買換引代金先送料要 地方註文

期米 福 吉村榮左衛門商店 仁川本町

金銀 永金商會 買賣 京城府水下町三六(小廣橋東) 電話光化門二九八六番 地方注文販賣代金先送料要

金.銀.白金 德 力德京城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金先送料要

十二月二十六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廿分)
◆佛싱그로시네超特作映畫(日本語版)
프라소와스로세이主演 母性의秘密
◆우파超特作映畫 에릭포ー마製作
代佛國이나은珠玉篇
칼・하트監督
◇P、D、L特作映畫
FP一號應答업다
山本嘉次郞監督
すみれ娘
堤眞佐子、リキー宮川、宇架浩、大川平八郞、岸井平八郞、藤原釜足、德川夢聲主演
─(新春第一週卅一日封切)─
映畫界를完全壓倒할二大作
新春映畫界人氣를獨占할二大作
男性NO1、노래의날개
日活超特作 佐藤情話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
團成社

十二月二十七日부터特別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낮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朝鮮키네마社特작품 아리랑 全七卷 監督…津方秀一氏 主演…羅雲奎氏
新興키네마社特作品 史劇 방아타 全七卷 監督…金尙鎭氏 主演…李慶善氏
유니버살社超特作品 西部劇 령웅용맹킵손(全六卷) 主演…후트킵손氏
뷰글바드(고메데이社作品) 喜劇 七顚八起 全二卷 主演…바시발도스데이
鷺梁津桃花洞 電話(龍)二三三 桃花劇場